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1호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 대사회 · 미래전략 강구 나선 조계종

## 자승 스님, 신년회견서 종무기조 · 사업계획 밝혀

오는 10월 임기 만료되는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올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는 종무기조를 세웠다. 더불어 차기집행부를 돕기 위한 중장기적 종책 연구도 착수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를 비롯해 주요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이 자리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스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제시한 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는 소수세력이 정치적 · 경제적으로 서로 결탁해 특권을 누리며 헌법정신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차별금지법률이 논의됐으나 일부 오해와 반대로 지체되고 있다"면서 "다문화 다종교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조계종은 차별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고, 종교간 대화의 장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차별금지법 공론화**
**대화의 場 통해 이웃종교 대화**
**종령기구 재편… 종책연구 강화**
**"종단화합 이끌 선거법 절실"**

### '백년대계본부' 신설

300만 명의 불교신자 감소라는 충격적인 통계청 결과에는 '백년대계본부'라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차기집행부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 종책을 통해 종단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조계종은 11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 공포하고, 12일 사무총장으로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본부장은 아직 미정이다.

백년대계본부는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종무를 승계하며 △미래 사회 변화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과 해법 연구 △종단 미래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 △사회갈등에 대한 화쟁적 해법 마련 △각종 조사 · 연구 · 발간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본부 내 불교사회연구소 · 화쟁위원회 · 사부대중공사 추진위원회 · 미래세대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 2년간 조직되지 못한 미래세대위원회는 백년대계본부서 싹을 틔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사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관련 종령은 폐지됐다.

본부는 본부장 · 지도위원회 · 운영위원회 · 불교사회연구소 · 각 위원회 · 사무총장 ·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본부장은 종사 이상 비구로 총무원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위원회는 행정 · 입법 · 사법 등 영역서 경륜과 원력을 가진 고위직 역임자 중 종단 미래 종책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로 꾸려질 예정이어서 종책연구가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백년대계본부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결사본부 보조금과 불교사회연구소 후원금을 승계하는 만큼 백년대계본부가 종단 내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계종은 기대하고 있다.

### "퇴임 이후 평범한 삶"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직선제 △멸빈자 사면 △퇴임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답은 관련 부서장 스님이 했지만 기자회견 말미 자승 스님이 직접 견해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먼저 직선제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거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대중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거법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종단 화합을 이뤄내는 방법이라면 어떤 선거법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300만 명의 불자가 줄어들었다는 인구센서스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자가 감소하는 데는 우리들 잘못이 있다. 사부대중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비불자들을 귀의시키려 노력했는지 나부터 스님 개개인, 불자들 모두의 허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침통한 속내를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마지막으로 총무원장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해 "정진하고 기도하는 평범한 대중으로 살 생각"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총무원장 3선이나 동국대 이사장직 취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대병원 서울본원에 분향소가 마련된 11일 오후, 안타까움에 애도하는 한 스님의 뒷모습과 달리 신념에 따라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의 영정 속 모습은 밝기만 하다. 사진=노덕현 기자

# '朴 퇴진' 소신공양 정원 스님 입적

## 7일 광화문 광장서 소신공양… 각계 추모 물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사에 주석한 정원 스님은 1월 7일 새해 첫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 오후 10시 30분 경 몸에 불을 당겨 소신공양을 시도했다. 스님은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일 오후 7시 40분 경 끝내 입적했다. 향년 64세.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산하 불교위원회서 활동하기도 했던 정원 스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불거진 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왔다.

소신공양 현장서는 "내란사범 박근혜 체포하라"는 스케치북 문구와 함께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죽음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도화된 수사로 소신공양을 수식하지 마라. 나는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라"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정원 스님의 입적 직후 불교계는 물론 정치계서 큰 애도를 표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는 "정원 스님께서 뭇 삶을 지극한 자비로 섭수하고자 발원하시고 스스로 등신불이 되셨다"며 "스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보살행을 보이셨다. 다시 이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동국대,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 신설된다

## 13일 설명회 가져… 불교대학 특성화 기대

### 평생교육원 · 한의대 연계 강의
### 전공 학사학위 취득 가능해져

동국대 불교대학을 주축으로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이 2017년도 신학기부터 신설된다. 융복합 교육이 추세인 현 상황에서 불교대학 특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신성현)과 융복합교육센터(센터장 임중연)는 함께 불교생사철학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3일 만해관 B256 강의실에서 '2017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교생사철학 연계전공을 추진한 고영섭 불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오지연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정승현 한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불교생사철학은 불교철학과 전통윤리, 체질의학에 기초해 심신의 생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융 · 복합을 통한 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최근 연구경향에 맞춰 동국대가 선보이는 야심작이기도 하다.

불교생사철학 전공은 불교학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원과 한의대학이 연계돼 커리큘럼이 이뤄진다. 첫 학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성찰', '인간 이해와 생명윤리', '심신의 생사' 등의 과목이 불교생사철학 연계 전공으로 신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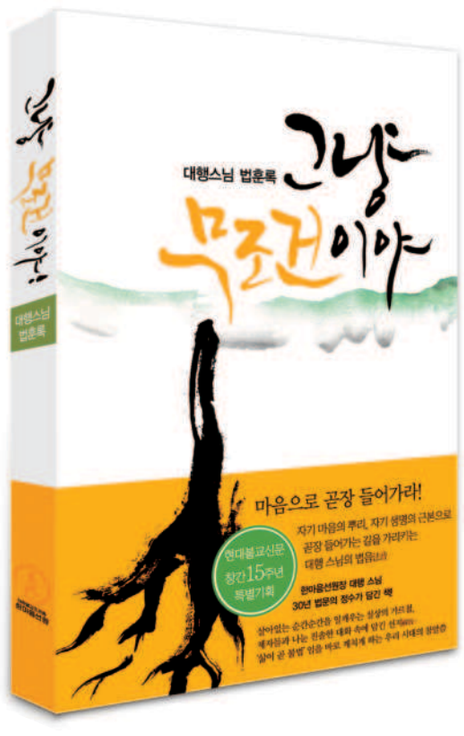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36학점을 취득하고, 3 · 4학년 과정서 개설된 전공 전문으로 전공최저이수 학점의 50% 이상을 이수한 뒤 졸업논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불교생사철학 학사' 학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고영섭 교수는 "인간소외 · 생명경시와 같은 문제가 커지면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불교생사철학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학위를 취득하면 죽음준비상담사, 자살방지상담사, 호스피스, 장의사 등의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학 학사와 불교생사철학사 학사를 동시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이 생기는 것이다. 불교대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www.hyunbulshop.com

# 조계종 문화특보에 혜일 스님

## 상임감찰 태허·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

### 호법과장·조사과장도 임명


혜일 스님


태허 스님

조계종 문화특보에 前기획실장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1~12일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문화담당에 혜일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상임감찰에 태허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 호법과장 자원 스님, 조사과장 기원 스님을 임명하며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종책특별보좌관 문화담당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다. 백련사, 연화사, 흥천사 주지 및 중앙종회 사무처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총무원 기획실장·문화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태허 스님은 성연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사미계)했다. 극락암 호국선원(통도사)서 안거 수행하고 백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응진 스님은 정야 스님을 은사로 2002년 수계(사미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직지사 천불선원, 남국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과장 자원 스님은 성효 스님을 은사로 2004년 수계(사미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다닌 뒤 동국대 대학원서 석사 졸업했다.

조사과장 기원 스님은 행돈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사미니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원사 동국제일선원, 승가사 제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템플스테이, 예약시스템 '간소화'

## 1월 16일 공식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 진행

### 검색기능 강화·카드결제 도입


개편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예약 시스템이 더욱 간편해지며,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템플스테이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1월 16일부터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개편, 템플스테이 사찰 정보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통합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카드결제 도입이다. 그동안 개별사찰들의 여건상 카드결제 도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간편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사찰소개 △갤러리 △체험후기 △사찰뉴스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수암 스님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템플스테이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특히 예약결제 시스템 개편은 템플스테이 참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예약결제 시스템이 전국 사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찰 및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사람에 한해 선착순 50명에게 본디나 무드등, USB 합장주, 본디나 여권케이스 등 5만원 상당 기념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또한 페이스북(www.facebook.com/templestay) 참여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신대승 특별토론회

# "연성·견성, 불교정체성 고민할 때"

### 조계종 조사방식 문제 제기에 "오차 ±0.03% 수준, 문제없어" 범계 등 불자 감소원인 지적하며 정체성 확립 등 미래전략 제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조계종이 조사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번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불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1월 12일 신대승네트워크가 주최한 '2015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한국불교에 던지는 함의-불교인구, 하락의 사이클에 들어갔나' 특별토론회서 '2015 인구센서스 결과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불교계가 조사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방식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조사방식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근거로 박 교수는 "조사방식이 전수조사서 표본조사로 바뀌었는데 표본 크기가 전체 인구의 5분의1, 표본오차는 ±0.03%(95% 신뢰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 조사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표본대상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먼저 권유하고, 미응답자 대상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오류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센서스 조사방식의 개선점에 대해선 "가족 내 종교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서 가구주(대표자)가 가족 모두의 종교를 응답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가구 단위 인구주택총조사가 아닌,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한국의 사회지표 등 다른 통계를 통해 종교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박수호 교수

이는 구랍 19일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긍정하는 한편, 구랍 15일 조계종 측이 통계청에 항의방문을 하며 부정한 조계종단의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762만 명으로, 2005년 대비 약 300만 명이 감소했다.

박 교수는 불자인구 감소 원인으로 △범계, 언론탄압, 권력화·세속화·자본화 등 교계 내 문제 △불자들의 기대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 △종교성 부재에 따른 이탈과 수련 중심 신흥종교 부상 △전근대적 신도관리 및 처우 △종단 정치 비대화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불교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조계종단의 무능 및 무책임이 비판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한 종교 본연의 역할 및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불자 위상 제고 및 역할 모색 등 내부조직 재정비를 통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재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교의 정체성에 대해 "연성종교로 갈 것인지, 경성종교로 갈 것인지 미래 전략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심각히 고민해 선택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성종교는 정체성이 약화돼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경성종교는 전면적 재조직화가 필요한 점을 단점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신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조직으로서 불교 종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회참여를 지속할 것인가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나섰으며, 윤남진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센터 소장은 2015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요약 브리핑을 맡았다.

**박아름 기자**

# 도올 강좌·동유럽 탐방… 달라진 연수교육

## 조계종 교육원 2017 연수교육 일정 발표

### 강좌·체험·연수 등 43개 강좌 종사·명덕 위한 특별과정 신설 전법능력 향상 위한 강좌 눈길 자원봉사·인증교육기관 확대도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연수 교육이 올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법계과정' 12개 강좌 △'사찰경영과정' 4개 강좌 △'경전과정' 6개 강좌 △'인문·과학·문화과정' 8개 강좌 △체험과정 2개 강좌 △워크샵과정 2개 강좌 △순례과정 국내 4곳, 해외 5곳 등 총 43개 강좌가 개설·운영된다.

올해에는 종단 스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강좌들도 대거 추가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의 '근현대 중국의 이해와 우리의 미래'로 오는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2일 동안 8시간에 걸쳐 열리는 도올 김용옥의 강좌에서는 중국 국가 시스템과 권력구조, 역사 등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법계과정으로 새롭게 개설된 〈종단최고지도자특별과정〉은 종사·명덕(승납 30년 이상) 법계인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과정으로,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종단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건강·최고경영자로 가는 길·한국사회와 복지·정치와 오늘의 한국사회 등이 구성됐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법계과정에 '한글 염불의례 실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스님들에게 한글 염불의례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형 강좌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선보이는 체험과정에는 '2박3일에 끝내는 동영상 제작', '수행과 요가' 등 스님들이 현장에서 비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강좌로 구성됐다.

워크샵 과정에는 '우리사찰신도두배늘리기', '청소년명상지도과정' 등을 개설하여 스님들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해 결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스님들에게 인기가 높은 순례 과정에도 '몽골불교·러시아, 바이칼 순례', '동유럽 문화탐방' 등이 신설됐다.

또한, 자비나눔의 실천을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43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8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3개 기관으로 총 184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교육 연수'는 42개 기관에서 63개 과정을 시행하며, 수료 시 30점의 연수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인증교육 연수는 연 1회만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종단지도자특별과정은 승납 30년 이상 스님들에게도 사회 전반에 대한 교양 지식을 원하는 스님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법능력강화 프로그램인 '우리사찰신도두배늘리기' 강좌는 포교원과 논의해 개설한 첫 강좌로 최근 불교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스님들의 연수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교육 수료 스님들은 2010년 1600명에서 2016년 5000여 명으로 수료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종단과 승가의 현실에 반영한 연수교육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연수교육에 새롭게 개설된 강좌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연수교육 안내 책자'와 '포스터'는 전국 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 신입 및 수료 과정 | | | | | |
|---|---|---|---|---|---|
| 모 집 | | 교수내용 | 요일 | 시 간 | 모집인원 |
| 1학년 | 상주권공 I |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 월 | 오후 1시 ~ 7시 | 30 |
| 2학년 | 상주권공 II |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 수 | 오후 1시 ~ 7시 | 편입생 약간명 |
| 3학년 | 각 배 | 각배과정 | 목 | 오후 1시 ~ 7시 | 편입생 약간명 |
| 4학년 | 영 산 | 영산과정 | 금 | 오후 1시 ~ 7시 | 편입생 약간명 |
| 불교의식 이론 |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화 | 오후 1시 ~ 4시 | *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 不通 문화재 행정에 조계종 '뿔났다'

## 자승 스님, 신년회견서 문화재청 비판 이유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일방적인 행정에 조계종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화재청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이다.

자승 스님은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무관심하고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등 보전이 필요한 국가유산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의 개편방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수장이 신년회견에서 정부 기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다. 하지만 조계종 내 문화재 담당 부서는 그간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 결과,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 갈등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된 문제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문화재청이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사업이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낙찰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경 낙찰된 이 연구용역에서 신흥사 · 용문사 · 안국사 · 화엄사 · 해인사 · 금당사 · 대전사 · 구룡사 · 내장사 · 월정사 등 10곳 사찰이 연구 대상자가 됐다. 문제는 이 사업이 조계종과 해당 사찰과는 전혀 사전협의 및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재청 관료조직 안주해"**
**신년기자회견서 이례적 비판**

**사찰 문화재 관람료 용역 연구**
**종단 · 사찰 통지없이 진행 논란**
**폐기 요구에도 민원 핑계 급급**

**조계종 종규 개정 연구과업 지시**
**"명백한 종교탄압, 헌법 위배돼"**
**연구기관 전문성 의문점도 다수**

조계종 총무원 복수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용역 연구 내용을 접하고 매우 당황했다"면서 "곧바로 11월 9일과 30일 연이어 연구 용역 폐기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문화재청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 올해 1월 5일 국장 스님들이 문화재청장을 항의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하고서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매우 불성실한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기관인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문화재 관련 연구소가 아니며, 연구참여자도 역사 철학, 도시공학, 정치경제학, 미디어영상, 농학 등 해당 사안과 관계가 없다"며 "또한 녹색연합의 경우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했던 이해관계 단체로 해당 연구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져 애초 제척 사유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연구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과업지시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등내용 현황 · 원인 분석 및 위법성 검토 △징수 위치에 대한 조사 · 연구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 문제점 분석 △관람료 폐지 시 사찰 손실분 보상 방안 △문화재 관람료 책정 수준의 합리적 기준안 마련 등을 연구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과업 지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내 관람료 징수 조항이 문제가 있고,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한 연구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정비 방안을 지시하면서 조계종 내부 종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정비 연구를 예시로 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1월 5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명의의 질의 서한에도 잘 나타난다. 정현 스님은 "과업 내용에 조계종 종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방안을 지시한 점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종교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종교 단체의 종법은 어디까지 내부 자치 규정으로 국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재단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본지는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담당 사무관을 접촉했으나 "서면 질의를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1월 12일 서면 질의서를 접수했다. 추후 현 사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이 회신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답변 차주 상보〉

# '현대차 GBC' 반대 범국민서명 확대

## 조계종 "재벌특혜 · 졸속행정 용납 안 돼"

봉은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 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반대운동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GBC 건립을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조계종 사찰 3000곳에 서명지를 배포했다. 또한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kr)를 통한 온라인 서명 및 모바일 서명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월 말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다.

조계종은 서명운동 전개와 더불어 GBC 건립 배경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2015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면담을 가진 뒤 열흘이 지나 기획재정부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 지원'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부지 매입 관련 8천억 원의 세제특혜를 비롯해 현대차가 최순실(미르 · K스포츠 재단 등) 씨에게 201억 원을 헌납한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현대차 GBC는 총 105층, 높이 553m의 초고층빌딩으로 건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 같은 건립 규모에 대해 "GBC는 남산과 남산타워, 25층 아파트를 일렬로 세운 높이에 버금간다"며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벌특혜와 졸속행정으로 인한 천년고찰 역사문화환경 파괴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불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더욱 관심 갖고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순수한 정교분리 불가… 정치 참여 기준 필요"

## 1월 11일 종자연 집담회 '한국정치 종교과잉 진단'

정교분리 원칙의 대한민국 사회서 종교의 사회 및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또 경계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이를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1월 11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서 집담회 '한국정치의 종교과잉을 진단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종교의 정치 및 사회 참여를 찬성한단 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권력화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불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한국불교에는 정치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재할 것인지 기준점이 없단 점을 지적했다.



조재현 심현주 김진호

조 사무총장은 "우리 역사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해방 후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이 마치 신성한 전가의 보도처럼 오늘날 성속에 구분 없이 사용된다"며 "정교분리 범위와 한계에 대해 각 종단 입장이 달리 해석되거나 기준이 혼재되거나, 혹은 전무한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는 정교가 순수하게 분리될 수 없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 방안과 기준에 대해 모색해야한단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 문제서 자본, 즉 돈을 핵심 문제로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처럼 불교가 또다시 정치와 불법적으로 유착돼 승가공동체 본연의 이상을 잃고, 정치권력에 순응해 금권에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극 정치에 개입해 공공선을 위한 세속화를 진행해야한다"며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종교권력이 균형성을 갖는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것이 입전수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현주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종교의 정치참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점을 역설하며, 다만 제도교회 내지 교회 권위자가 개인의 사회적 권력 및 교권확장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대해 교회 자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 사회의 권력과 자본이 특정 권력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일컫는 '파워엘리트' 현상을 비판하며 "종교는 파워엘리트서 가장 중요한 연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대형교회가 그렇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신교회는 권력과 자원에 대한 독점체제를 청산하고 성공지상주의를 해체하는 새로운 개혁을 맞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 "개헌, 반복되는 정치 불행 막는 길"

## 6대 종단 종교인 모임, 국민기본권 실현 · 국정안정 촉구

장기화된 국정혼란에 종교인들이 일침을 가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연성헌법으로 개헌을 촉구했다.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심부름꾼 법륜 스님 등, 이하 종교인 모임)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연성헌법으로 개헌 추진 및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종교인 모임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삼권분리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단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돼야한다"며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개신교 160명, 불교 157명, 원불교 72명, 성공회 23명, 천주교 83명, 천도교 28명 총 523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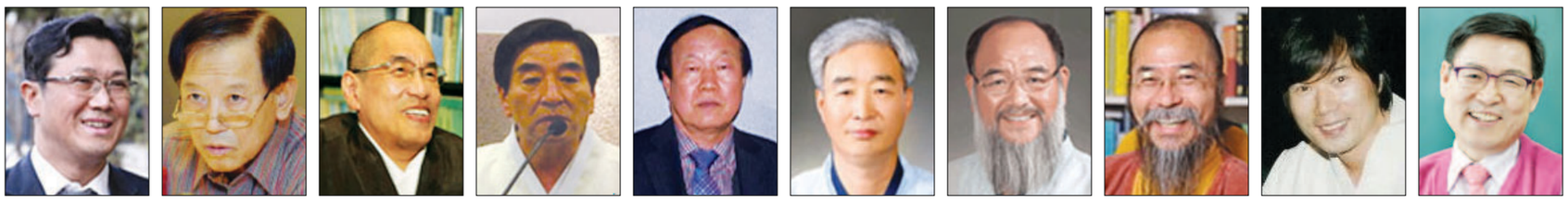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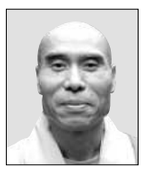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 일 주 문



**구정맞이 자비나눔**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1월 17일 서울 홍은2동주민센터에서 지역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자비의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고양시사암련, 신년하례법회**

대오 고양시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은 1월 11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고양시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 소설가 구효서,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 중편 〈풍경소리〉로… 문학사상 11일 발표



불교적 심상을 소설에 꾸준히 담아온 구효서 소설가가 제41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 작품은 중편소설 〈풍경소리〉다.

문학사상사는 1월 11일 "제41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구효서 소설가, 우수상에 김중혁 · 이기호 · 윤고은 · 조해진 · 한지수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인 구효서 소설가의 〈풍경소리〉는 주인공 미와가 "달라지고 싶으면 성불사에 가서 풍경소리를 들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성불사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성불사의 대중들로 인해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성찰을 이루는 과정은 선문답으로 묘사되며 몰입감을 더한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구효서 소설가는 "(글 쓰는 과정을)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즉각 존재를 환수당하는 것이 소설가의 운명이기 때문"이라며 "절박한 계제였으니 심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 연장의 기쁨을 이길 기쁨이 있을까"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품집은 1월 18일경 발간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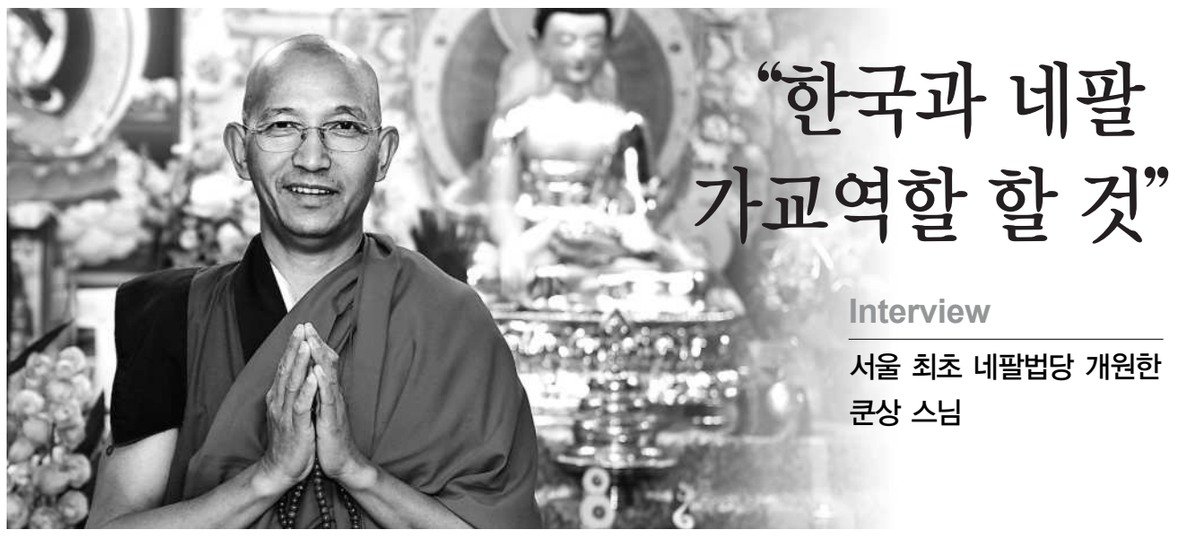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0일 인사를 단행했다.

**〈부총장〉** △기획부총장 이의수 △교무부총장 김성훈 △대외부총장 이관제

**〈정각원장〉** △정각원장 혜원 스님

**〈대학원장 및 대학장〉** △일반대학원장 윤성이 △영상대학원장 김정환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관규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신성현 △문과대학장 김영민 △이과대학장 김형상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한희원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곽채기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장 이윤호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김진선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이광근 △공과대학장 박준영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김승호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신영섭 △약학대학장 권경희 △다르마칼리지학장 곽문규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장 이강우

〈현불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한국과 네팔 가교역할 할 것"

**Interview**

**서울 최초 네팔법당 개원한 쿤상 스님**

**1999년부터 한서 불교공부**
**네팔 · 한국 교류에 지속 노력**
**정우 스님 등 불자들 후원**
**개원 후 기도, 참선도 진행**

서울 강남 고층빌딩 사이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작은 법당이 문을 열었다. 바로 '서울 네팔법당'이다.

쿤상 라마 도르제 스님(이하 쿤상 스님)이 1월 8일 일원동에 개원한 네팔법당은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도량이다. 그동안 서울 시내에는 성북구 네팔인 쉼터 '자비의 집'이 있지만 법당으로서는 최초다. 지하에 30평 규모인 서울 네팔법당은 향후 네팔불교와 한국불교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쿤상 스님은 "한국에는 4만 명이 넘는 네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쉼터역할이 우선이겠지만, 네팔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꾸며 나가겠다"며 "어렵게 시작해 아직 많은 것을 갖추진 못했지만 양국 불교의 가교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쿤상 스님은 1999년 한국에 들어와 2003년부터 남양주 보광사에서 한국불교를 배웠다. 네팔과 한국불교를 동시에 전하는 법당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찰나 한 노 비구니 스님이 제안을 했다.

"법명을 밝힐 순 없지만 인연으로 만난 한 비구니 스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인척 중에 상가를 하는 분이 있는데 공간이 빈다고요. 와서 보니 지하이긴 해도 터가 좋았어요. 저렴하게 임대 계약을 맺고 법당 문을 열게 됐습니다."

서울 내 최초 네팔법당 개원에는 평소 티베트와 네팔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이 후원했다. 2014년에는 불자들이 만다라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보태주기도 했다.

쿤상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의 나눔 문화에 매력이 있다고 했다. 이는 서울 네팔법당에도 반영돼있다. 서울 네팔법당 규모는 100㎡(약 30평) 가량이다. 네팔법당 주불은 네팔양식의 석가모니불이지만 왼쪽에는 지장보살도 모셔져 있다. 법당 내부에는 네팔식 탱화와 오색 천 장식과 함께 신중단도 마련돼 있었다.

"저와 네팔에 보내준 호의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네팔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이주민, 그리고 한국분들 누구나 평소에 찾아와 기도와 명상을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법회도 네팔과 한국 양국 방식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히말라야라마협회 대표도 맡고 있는 쿤상 스님은 한국불교를 네팔 등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대중을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한국과 네팔을 떠나 불제자로서 대중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해가겠습니다."

한편, 8일 열린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동두천 용수사 지원장 우르겐 스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종무원조합, 성역화 참여

### 1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4,300만원 전달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성만재)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불사 기금 4,388만원을 전달했다.

성만재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종무원으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조계종과 총무원 다양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며 "불교문화를 지키고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신도 등 5명도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불사를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승희 기자**

## "출가본회 직시, 실천하자"

### 관음종 9일 낙산 묘각사서 신년하례법회




관음종은 1월 9일 낙산 묘각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단의 어른과 도반 그리고 사제 간의 결속을 다졌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부처님 출가본회를 올바로 직시하고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개최된 제54차 중앙종회에서는 2017년 예산 49억 3,300만원이 확정됐으며,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령재, 라오스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등이 결의됐다.

**김주일 기자**

# 석가산스님문도회 사경 회향 기원법회 봉행

**1월 11일 진천 호국원융사서**
**2차 회향 5월 8일**


석가산문도회 회원들이 사경정진의 원만회향을 발원하고 있다.

석가산문도회(회장 운암)는 1월 11일 충북 진천 호국원융사 대법당에서 '가산스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58권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가산 스님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원만 회향을 기원하고 제방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고하는 의미로 열렸다. 앞서 가산 스님은 대승권 최초로 경전결집의 원을 세우고 무문관 묵언을 원칙으로 사경 정진에 들어갔다.

가산 스님은 호국원융사 목우한실에서 대방광불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을 칭념하고 1자 1배로 제1차 원융결사 345일을 원만 회향한 바 있다.

문도회 회장인 운암 스님(칠곡 운암사 주지)은 "매일 사경에 전념해 14장의 사경을 하시고 그 과정을 빠짐없이 일지로 기록하셨다. 스님은 오직 경전결집의 대원만 생각하고 있다. 문도회는 마음을 모아 가산스님의 큰 발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심양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사경은 예정대로 올해 음력 5월 8일에 회향 예정이며, 제3차는 경전결집 마지막 발원을 위해 세계 53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이란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 5일 종교간대화센터, 조계사 방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5일 이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모함마드 마흐디 타스키리 종교간 대화센터장 등 10여명은 주지 지현 스님과 차를 마시며 양국간 종교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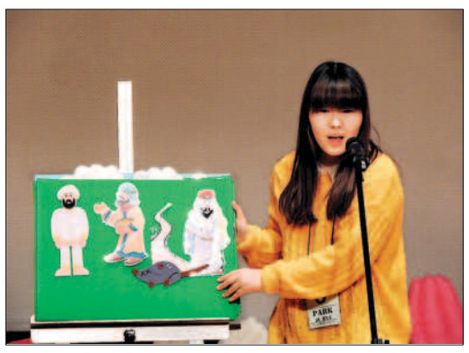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부처님도 아실까? 천진불 영어실력 '쑥쑥'

## 10돌 맞은 '어린이영문자타카 암송대회'



2013년 6회 자타카 암송대회서 사자와 늑대 일화를 열연하는 참가학생들


2014년 7회 대회 모습


2011년 4회 대회의 한 장면

"원스 어폰 어 타임(once upon a time)……"

매년 정초면 서울 조계사 인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는 아이들의 영문 낭독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진다. 바로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그것도 잠시, 아이들은 어느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실력을 뽐낸다.

그동안 어린이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심어 준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첫 대회를 연지 10년을 맞았다.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는 1월 7일 제10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예선을 연데 이어 14일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는 부처님 전생담인 〈본생경〉, 즉 '자타카'를 영어로 외워 발표하는 대회다. 영어 발음과 발표 능력뿐만 아니라 자타카의 핵심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32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신청해 16명이 본선에 올랐다. 무대에 오른 어린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부처님 가면, 인형, 동물 분장 등과 함께 살아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한 어린이는 직접 만든 LED연등 속에 들어가 발표하기도 하고, 몇몇 팀은 상황극으로 자타카를 재연하기도 했다.

### 영어교육 바람 타고 열린 1회 대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열 때문이다. 2000년대 영어 조기교육 붐이 일었고, 때마침 불교계에는 세계화 바람이 불었다. 이에 국제포교사회는 불교계 내에서도 영어교육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포교에도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기획했다.

어린이 불교 영어 암송대회로 열린 1회 대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참가한 사찰이 41곳에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신청이 많아 이 대회는 중학생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불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명의 학생이 본선에 올랐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치원 원생이 입상하기도 했다.

**초기대화부터 참여열기 높아**
**6회대회 기점, 참가자 급감**
**학력활용, 참가유인 부족 지적**
**"참여만으로도 성취 느끼게 해야"**

**영어교육 바람 탔지만 최근에는…**

| | | |
|---|---|---|
| 2008년 | 1회 대회 | 60명 |
| 2009년 | 2회 대회 | 47명 |
| 2010년 | 3회 대회 | 58명 |
| 2011년 | 4회 대회 | 42명 |
| 2012년 | 5회 대회 | 78명 |
| 2013년 | 6회 대회 | 90명 |
| 2014년 | 7회 대회 | 76명 |
| 2015년 | 8회 대회 | 58명 |
| 2016년 | 9회 대회 | 27명 |
| 2017년 | 10회 대회 | 32명 |

이 같은 열기는 계속 이어졌다. 2회 대회에는 47명이 예선에 참여해 25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3회 대회 58명 참여, 4회 대회 42명 참여, 5회 대회 78명 참여, 6회 대회 90명 참여라는 증가로 이어졌다.

그동안 영어명칭도 수차례 변경됐으나 예선은 국제포교사회 사무실에서 본선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전통도 생겼다.

국제포교사회 측은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고찰' 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총 참가신청인원 중 34%인 129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참가자 수도 지속 늘었다"며 "해마다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경험 · 자신감 주는 대회로 발전 시켜야

하지만 최다 참여인원을 찍은 2013년 제6회 대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총 참가 사찰 41곳 중 6회 대회에 참가한 사찰은 53.7%인 22곳에 불과했다. 한 번 참가한 사찰이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2013년 청소년 학력에 외부대회 수상 이력 기입이 금지되며 참가자가 줄기 시작했다. 7회 대회 76명, 8회 대회 58명, 9회 대회 27명에 이어 올해 열린 10회 대회에는 32명이 예선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색 예선 심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9회 대회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단 1명만이 대회 예선에 참여해, 지역예선이 진행되지 않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대회에서는 광주지역에서 1명이 참여해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선이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 권서영 간사는 "학업 성취와 관련해 참가하는 이들이 크게 줄었다. 포교사회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는 경쟁구도에서 탈피하고, 참가자들이 참가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회 성격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아이들이 예선에서 상심, 차기대회 불참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와 대회 본취지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자는 것이란 지적이다.

매년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자우 스님은 "지난해에도 영어를 정말 못하는 아이 3명을 데리고 참여했다.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으니 실력이 일취월장, 본선에 진출했다.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탈락시키거나 좌절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본선은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연극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참여의지를 북돋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때"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린이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최다 참가자는?**
10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다 참가 학생은 윤상아 학생이다. 서울 화계사 신도인 윤상아 학생은 제1회부터 제4회까지 총 4회 참석했다. 1회 대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이었으나 6학년 때까지 꾸준히 참석했다.

초3

**나이 많을수록 유리? 초등학생이 최다 본선 진출, 최다 수상**
국제포교사회 본선진출 현황에 따르면 최다 참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중학생이 유리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 최다 수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실제 경연 현장서는 어린 나이에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저학년일수록 영어 조기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또 학부모의 열기도 높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동영상도 도입, 특별한 예선 심사도 열려**
제9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에서는 부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참가를 신청한 문현초등학교 6학년 이산해 학생이 최초로 동영상으로 예선을 응시했다. 이산해 학생은 평소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불교영어는 처음이었다. 예선에서 지방에서 상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 최근에는 지역예선과 동영상 등을 통한 예선도 진행되고 있다.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 날개 편 '행복바라미' 캠페인, 기부문화 변화 신호탄

## 날마다좋은날, 4년 통계 결산
## 기부 74.6% 증가 '화제'

### 역대 최다 모금함 183개소
### 사찰참여도 크게 늘어




*"보통 '사랑의열매'나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기부를 합니다. 불교계에 이런 기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요. 마침 사찰에 갔을 때 행복바라미 자선모금함이 있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 조계사 신도 박OO씨(52세)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나눔캠페인이 불교계 기부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모연액이 2013년 모금캠페인 시작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사찰 참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새해에는 300개 사찰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모금된 금액은 2억 760만원으로 이는 2013년 출범 당시 1억 1880만원에서 74.6%가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첫 출범 이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억 117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억 71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해서도 3700만원이 증가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모금액 증가가 거리모금 활성화에 힘입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사회의 대형 모금캠페인에 비해 미약한 금액이지만 출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날마다좋은날은 올해 4월부터 주요도시 10곳에서 지역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2015년 141개소에서 42개소가 늘어난 183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모집장소뿐만 아니라 참여사찰이 2015년 59곳에서 95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에는 중앙신도회가 지난해에 구성을 완료한 교구신도회의 활약이 컸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구랍 18일 조계종 제3교구 속초 신흥사를 끝으로 24개 교구 신도회를 모두 설치했다. 이기흥 회장은 각 교구신도회와 함께 1월부터 8월까지 300개 사찰에서 순회대장정을 열고 사찰의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모금함 설치를 비롯해 모금 운영자 활동 등에 사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300개 사찰에 모금함을 미리 발송한 상태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특징은 다른 불교계 모금 캠페인과 달리 거리모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16년 모금액 중 거리모금액은 약 90%인 1억 7800만원에 달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경우 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 팀장은 "대부분이 소액 기부다. 사찰의 협조도 있지만 많은 불자, 시민들이 작은 금액을 십시일반 보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교계의 협조도 늘고 있다. 울산사암연합회의 경우 울산지역 문화제 개최 후 23개 모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모금소가 늘어나는 것은 모연 분만 아니라 행복바라미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날개를 편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금의 스토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영우 도움과나눔 대표는 "비영리단체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토리의 생산과 확산, 기부자에 대한 돌봄에서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불교 외 일반국민과의 교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날마다좋은날 측은 올해 모금액 중 1억 9380만원을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했다. 지원인원도 역대 최다인 420명에 지원 금액도 평균 46만원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인생 · 열정' 영화 해설 老 · 少 세대 넘다

어르신들이 서울노인영화제 영화에 대해 인생을 녹인 해설을 펼치자 우송대 복지학과 대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월 11일 복지관 별관 2층 노년설계교실서 '서울노인영화제 순회상영회-시선'을 개최하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 20여 명과 서울노인영화제 진출작 감상 및 해설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감독작 〈실버만세(2014)〉와 청년 감독작 〈박스(2015)〉가 상영됐다.

영화 해설가로 활동중인 복지관 이용자 정현숙 · 백영자 · 김준영 · 김정애 · 김수연 · 박완희 · 장희성 씨 등이 나서 영화 상영 후 우송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영자(71) 씨는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동란 등 겪으며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런 와중에 열심히 일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조건을 이뤄낸 것"이라며 "영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열정을 느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 "미혼모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하겠다"

### 도담하우스, 11일 신년계획 밝혀

### 1인 1자격증운동 전개
### 퇴소자 네트워크도 구축

불교계 유일의 한부모 · 미혼모 단일시설인 '도담하우스'가 입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에 나선다.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이사장 이매옥)이 운영하는 도담하우스는 1월 11일 2017년 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밝혔다.

도담하우스는 신년 추진과제로 △사회적 기업 설립 △직업교육 △어린이집 설치 지원 △퇴소자 네트워크 구성 △청소년보호 · 지원 등을 내세웠다.

허진호 시설장은 "올해 상반기 정오사회복지법인(가칭)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정부 지자체와 대체부지 확보 · 사업관련 부처 협의 · 사회적기업 아이템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미혼모들은 취업이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담하우스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담하우스는 입소자들에게 토탈공예 · 캘리그라피 · 전통매듭 · 메이크업 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도담하우스 측은 기존 교육을 전문화해 '1인 1자격증 따기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매옥 이사장은 '퇴소자 네트워크' 구축도 강조했다. 입소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퇴소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산모들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소기간이 평균 3~4개월 정도로 짧다. 준비되지 않은 채 퇴소한 미혼모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적기업 운영과 더불어 아이를 보살펴줄 시설이 마련된다면 퇴소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매옥 이사장에 따르면 도담하우스는 어린이집과 미혼모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부처와 논의, 후원을 확보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올해 도담하우스는 입소자를 위한 심리상담전문 생활복지사도 충원했다.

이매옥 이사장은 "사비로 충당하는 지원도 많아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불자로서 '인간 방생' 하나만 보고 정진한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조계종복지재단, 국내 최대 복지관 위탁 '눈길'

### 11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협약, 4월부터 운영

조계종복지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실서 고양시청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위 · 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본격 운영되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에 위치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면적 5,488㎡, 연면적 15,318㎡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단일 복지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4월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신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협약으로 조계종복지재단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 · 조직화 사업 △가족기능강화 교육 및 문화 사업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유아 · 노인 · 청소년 · 다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위탁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5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장안사 주지 성화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했다.


위탁협약식 모습. 사진 오른쪽은 최성 시장.

자승 스님은 "이번 위 · 수탁 업무 협약으로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재단 운영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에 새로운 미래 복지 비전을 도모하고, 능동적 ·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미래 통일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역할 하게 될 고양시에 불교계 복지 · 포교 · 교육 · 문화를 퍼뜨릴 프로젝트를 꾸준히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 불교복지 거점을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포교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 자비선사 명상지도사 과정 모집

성주 자비선사는 2월 25일까지 자비선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명상지도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비선사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단체로 명상지도사 과정에서는 자비수관(좌선명상), 자비경선(걷기명상), 자비다선(차명상) 등이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각 반 당 20명 씩이다. 강사로는 보리마을자비선원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이 나선다.

개강은 3월 4일과 11일 두차례 진행된다. 수강료는 연간 60만원으로, 일괄 납부시 50만원으로 할인된다. 또 자비선사 후원자의 경우 20% 할인 혜택이 있다. 청강도 가능하다. 청강생은 각 회차별로 6만원씩 참가비가 있다.

자비선사 측은 "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로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불교전통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며 "좌선, 걷기, 다도 등에 걸쳐 다양한 명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게 됐다. 의식의 특성 및 작용 등 이로부터 상상기법을 활용한 예비명상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054)931-8874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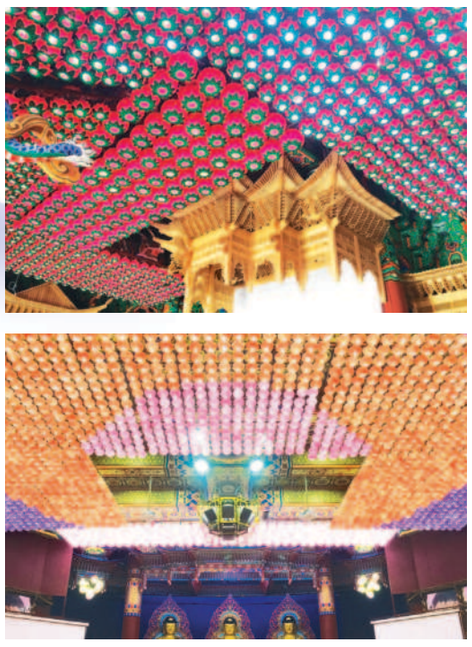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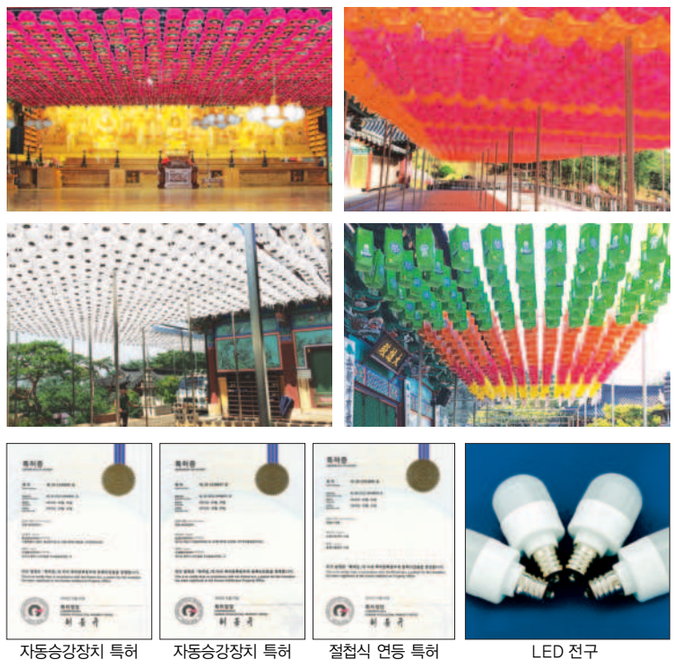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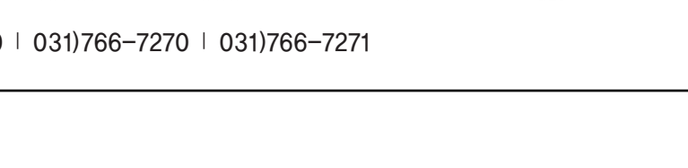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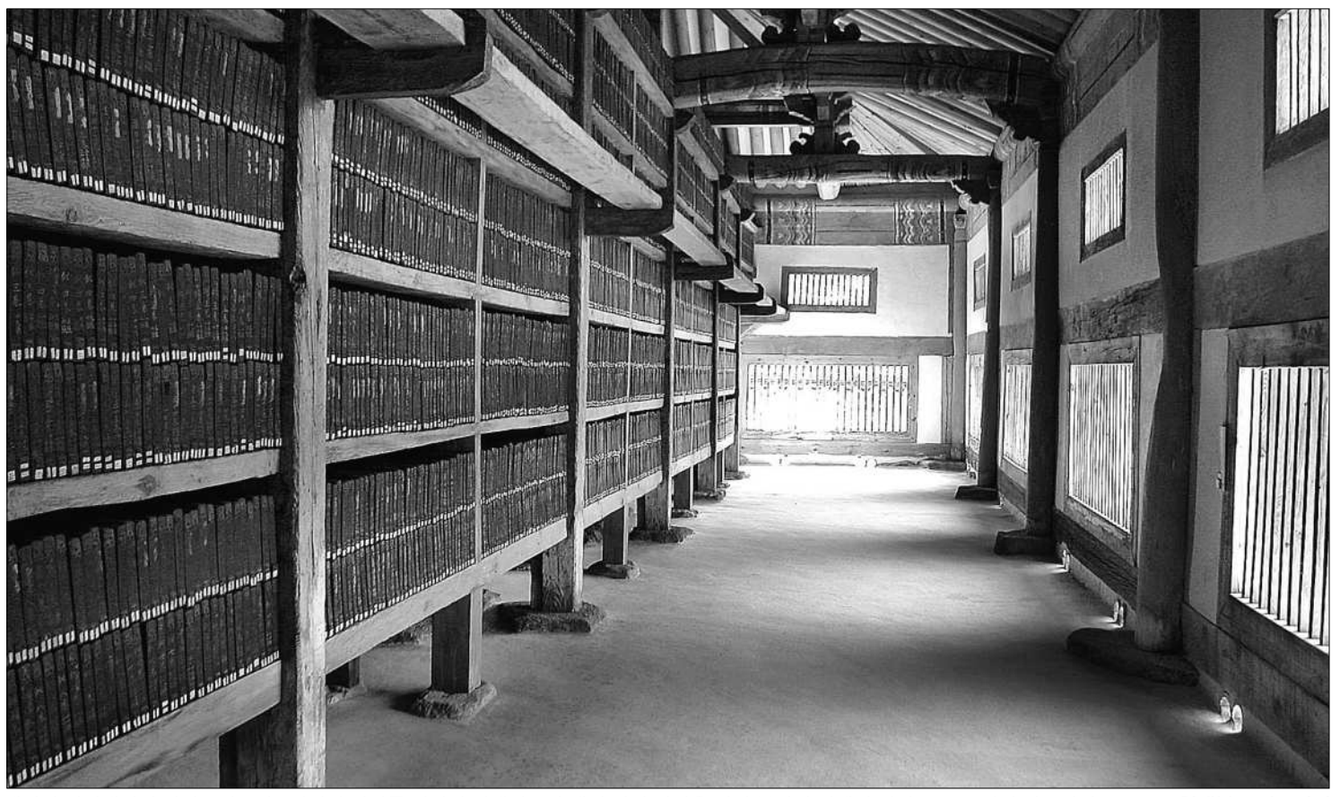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불교 철학 Essay
붓다 찾는 천로역정

# "경전을 읽어라! 그래야 불교 맛을 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들의 모습. 경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수행과 직접 경전을 읽어 붓다와 일체가 되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② 경전의 바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 경전에 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해 보고자 고개를 돌리면, 먼저 엄청난 문헌의 양에 압도되어 기가 질린다. 다양한 경전의 내용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까지 있어 우리를 혼돈케 하고 당황시킨다. 〈아함경〉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붓다도 그 혼란을 이미 예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과 법칙(연기론)의 심심 미묘함이라니. 그것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실로 이 인과 법칙은 심심 미묘하며, 그것은 심오하다. 이 연기법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들은 타래처럼 뒤얽히게 되었고, 마치 삼이나 왕골 밭처럼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이게 되었으며, 쇠퇴의 운명과 비참함과 몰락과 끝없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위의 경전 내용을 보면서 붓다의 깊은 고뇌를 읽는다. 그의 명석한 제자 아난다마저 연기법이 간단하다고 말하니. 연기법은 붓다 가르침의 제일 근원으로 여기서 무아와 공이 나오고 자비정신의 원천인데 아난다마저 이해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나도 연기법을 간단하게 본 시절이 꽤 길었다.

붓다는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후 보리수 밑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즐기셨다. 그 후 붓다는 고민에 빠진다. 이 귀중한 깨달음의 진리를 혼자서 지니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느냐?

"고생 끝에 겨우겨우 얻은 이것을
어이 또 남들에게 설해야 되랴.
오, 탐욕과 노여움에 불타는 사람에게
이 법을 알리기란 쉽지 않아라.
세상의 상식을 뒤엎은 그것
심심 미묘하니 어찌 알리오.
걱정에 메이고 무명에 덮인 사람은
이 법을 깨닫기 어려우리라."

붓다는 이러한 고뇌를 넘어 고(苦)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위해 드디어 길을 떠난다. 붓다의 여정은 태풍과 파도가 산같이 몰려오는 것에 배를 띄우는 것이리라. 연기와 무아는 인간 삶의 양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역리이기에.

상상해 본다. 붓다가 연기법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셨을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설법의 길에 우연히 만난 외도(外道) 우파가(Upaka)이다. 그는 붓다의 거룩한 모습에 이끌려 붓다에게 접근하며 말을 붙인다. 붓다는 반가워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니 놀라고 황당해 하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라는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떠난다. 붓다 첫 설법의 실패담이 이렇게 경전에 공공연하게 공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 우리 모두가 우파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리라.

붓다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법활동을 하였다. 또한 붓다는 상대의 근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했다. 붓다와 붓다의 제자 사이는 연기적 관계이다. 붓다의 법이 제자들에게 다양하게 들릴 가능성은 항상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붓다의 불법은 붓다 입멸 후 근 400년 간 송습교단(誦習敎團)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구전전승으로 인해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믿을 만한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구전에서 문자화된 경전으로 정착된 시기도 이론이 다양하다. 인도인들은 역사적 연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이라 한다. 역사상의 흥망성쇠는 영원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하찮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붓다가 입멸한 년대도 현격한 차이로 다양한 추정이 있으니 경전이야 오죽하랴. 또한 경전에 별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한다. 익명성이야말로 성스러움에 어울리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나가르주나, 바수반두 등 이름을 남긴 인물들도 있지만 이 이름을 이용한 익명의 저자들도 있다고 하니,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이 넓고 긴 경전의 바다를 건너야 하나? 불교의 삼보중 제일 핵심적인 것이 불법이고, 이 불법을 담고 있는 것이 경전인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긍정할 것인가? 필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긍정할 것이냐에 치열한 고뇌를 한 선각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이런 선각자 때문에 불법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디그나가(Dignaga,480-540)이다. 디그나가는 "음미되지 않은 싯다르타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라며 붓다를 이해하는 정교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원효도 같다고 한다. 불행히도 너무나 훼손된 채 전해오는 〈판비량론(判批量論)〉에 원효의

> "붓다와 일체가 되도록 노력하자
> 붓다의 고뇌 함께하고
> 가르침을 체감하는 게
> 붓다와 하나 되는 행위이다.
> 경전의 바다를 넘는 것 자체가
> 수행의 길이 아닌가 싶다"

비판철학적 숙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경전과 종파가 있어도 붓다의 제일 중요한 지혜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것은 붓다를 치열하게 독해한 선각자들의 덕분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넓고 깊은 경전의 바다를 건널 것인가? 이것은 바로 디그나가의 방법처럼 붓다 말씀을 '바르게 음미' 하는 것이다. 이 '음미' 의 방법은 전문가에 따라 '문헌 분석' 에서부터 '역사적 접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붓다에 소박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불자는 어떻게 경전의 바다를 건너야 하나?

나는 붓다라는 역사적 인물을 뗏목으로 삼아, 경전의 바다를 건너가고자 한다. 이 방법이 일반인에게는 제일 빠르고 쉽게 붓다 다르마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붓다라는 역사적 인물로 접근하는 경전 해석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붓다의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난 붓다의 인격과 지향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불교와 긴 인연을 맺었지만 붓다의 생애를 통해 전해진 체온은 최근에야 느꼈다. 붓다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생애를 연구한 책과 자료를 보면서 어떤 경전보다 큰 감명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해 많은 불교도들이 붓다를 체온으로 느끼지 못하고, 역사 인물에 대한 지식 비슷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된 불교에 대한 습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불교는 붓다의 종교인데 붓다 생애의 발자취에서 그 뜻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창시자는 초월적인 신이나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불교를 아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붓다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최상위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두 번째, 붓다 전법의 목적과 핵심 사상의 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붓다 전법 목적과 핵심사상은 불교의 모든 교리 책에 나온다. 그런데 나는 이를 왜 새삼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붓다를 교조로 내 세우는 각종 불교에서 오히려 붓다 다르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붓다 다르마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 목적과 핵심사상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붓다 핵심사상에 대한 강조는 스리랑카의 고승이자 탁월한 불교학자인 라훌라(Walpola Rahula)의 저서 〈What the Buddha Taught〉에서 절절히 나타난다. 그는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와 무아(無我) 그리고 수행 등 여섯 주제로 나누어 핵심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서양 불교학자들이 핵심사상을 왜곡하거나 간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교라는 연이 붓다 다르마와 연결하는 얼레의 실을 끊고 날아간다면 붓다의 불교는 아니다.

세 번째, 붓다는 탁월한 교사로서의 자질과 실용적인 윤리학자로서의 품성을 지닌 분이라는 점이다. 붓다 생애의 발자취와 설법 내용을 보면 붓다는 참으로 매력적인 분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전하시고, 상대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매우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전하는 완고한 설법자가 아니다. 그는 항상 연기적 입장에서 가르침을 전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보면 현대 교육 방법론의 이론을 2500여 년 전에 개발하고 실천하신 분이다. 또한 붓다가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은 어떤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입장에 따라 적용되는 실용적인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붓다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은 내가 도출한 것이 아니라 불교 저서들에 나온 것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틀로 경전을 보면 붓다의 참 뜻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붓다와 일체가 되어 보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와 일체화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붓다의 고뇌를 함께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철저히 체감하여 붓다와 하나 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경전의 바다를 넘는 것 자체가 수행의 길이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대승경전의 불설 · 비불설 논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대승 경전이 붓다를 내세워 불설을 가탁(假託)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일종의 기만행위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대승 경전의 내용은 붓다의 기본 사상이 주변의 환경과 연기하여 진화, 확장되었다고 본다. 대승적인 씨앗은 초기 경전에 이미 파종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불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경전을 직접 접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나의 사부로 생각하는 어느 도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새삼 생각난다. "불교를 해석하고, 논쟁하는 책은 이제 그만 읽으세요, 그리고 직접 경전을 읽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불교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목돈을 들여 〈니까야 전집〉을 사긴 샀는데 아직 바라만 보는 수준이다.


방영준(성신여대 명예교수)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 불교 東傳의 길 '붓다로드'서 韓불교미술을 보다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타크라마칸 사막의 나그네. 일명 실크로드로 불리는 이 길은 불교 전래의 길이자 구법승들의 구법로, '붓다로드'였다. 수많은 석굴사원이 존재하는 이 길은 아름다움의 길이기도 하다.



##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 ① 깨달음의 길, 아름다움의 길

길 위에서 길이 어디냐고 묻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길이 어디예요? 길 위에서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행장을 꾸렸다. 그동안 참 많이도 걸었다. 많은 곳을 다녔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방황이었다. 방랑이나 산책과 같은 단어는 하나의 사치였다. 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이 '저기를 봐' 했다. 좀 더 가면 길이 보인다고. 그래서 나선 길이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대장정의 길이었다. 처음에는 글자 그대로 '비단길' 인줄 알았다. 정말 비단이 깔린 아름다운 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은 나서면 나설수록 험로임을 알게 했다. 실크로드 기행(紀行)은 고행(苦行)이었다. 실크로드는 중국 비단이 로마까지가 인기를 끌게 했던 길이다. 비단은 금과 같은 무게로 바꿀 정도로 인기였다. 로마 한림원은 국고를 축낸다하여 비단옷 착용을 금하기도 했다. 실크로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길의 이름, 하지만 고대 동서교통로가 되었다.

이게 길이야, 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 그 분을 좇아 중국대륙을 헤매고, 또 사막을 건너 만년설의 파미르 고원을 건너, 간다라를 건너, 인도로 갔다. 아, 여기, 룸비니와 붓다가야, 거기에 길을 가르쳐 준 분이 있었다. '붓다로드'가 있었다. 바로 불도(佛道)였다. 깨달음의 길이었다. 붓다로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다. 북방불교의 길, 그 길은 중국대륙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렀고, 궁극적으로 신라문화를 꽃 피우게 했다. 종점은 토함산이었고, 거기에 세계적 국보 석굴암을 세우게 했다.

불교 전래의 길. 아니, 불도, 그 깨달음의 길, 노상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나의 화두는 깨달음과 아름다움이 되었다. 미술이라는 단어 하나로 담기에는 뭔가 아쉽게 하는. 물론 절에서는 미술 역할을 '장엄'이라고 표현한다. 나는 이 장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찰은 불교미술관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절을 세울 때,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찰은 미술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찰 순례는 미술관 탐방의 길이었다. 바로 깨달음의 길이면서 아름다움의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았다.

'붓다로드'를 본격적으로 답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여름이었다. 당시 '중공'이라고 불리던 중국대륙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한국 여권으로는 들어 갈 수 없는 '죽(竹)의 장막', 그 '공산당의 나라'에 겁도 없이 입국했다. 한 신문사의 후원으로 들어간 중국대륙 취재여행이었다. 그런데, 이 무슨 인연인가. 현지에서 비자가 연장되고, 여행경비까지 해결되고, 수행원까지 생기게 되고, 뭐, 인생이 바뀌려고 그랬던가. 나는 3개월 동안 중국대륙을 지그재그 누볐다. 백두산에서 티베트까지 갔다. 그때 타크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을 횡단했다. 돈황석굴과 용문석굴을 거치는 언저리의 하서회랑 협곡에서, 나는 서울올림픽 소식을 들었다.

그 후 나의 오지여행은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뉴욕생활을 졸지에 마감하게 되면서 인생행로가 바뀌었다.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실크로드 미술기행단을 꾸리기도 했다. 당연히 여름과 겨울 방학은 오지에서 지냈다. 당시 나의 안내로 오지 체험한 미술가들만 해도 백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몇몇 화가들은 인생관이 바뀌어 '시대구분'의 경계선을 이룰 정도라고 의미부여하기도 했다.

불교 동전(東傳)의 길. 그 붓다로드를 다니면서 나는 우리 미술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국불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불상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도 속인의 눈으로 '최고의 불상' 단 하나만 골라 보라 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꼽았다. 심지어 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만약 한반도가 침몰되어 단 하나의 아이템만 허락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건지겠다."



카라코럼 하이웨이 훈자 부근.

**1988년 시작한 붓다로드 순례**
**그 길서 우리 미술을 다시 봤다**

**佛道는 깨달음이자 아름다움의 길**
**"覺者의 참 모습 무엇인가" 화두로**
**오늘도 '길에서 길이 어디냐' 묻는다**

그래서 얼마 전 나는 〈토함산 석굴암〉이라는 제목의 장편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석굴암은 한국 불교미술의 최고봉이라고 칭송이 자자한데, 하지만 최고봉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책도 아직 접하지 못했다.

가치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고통과 방황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10대 이래의 의문점이었다. 정확하게는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석굴암 기행 단원을 공부한 이래의 의문점이었다. 이 의문은 대학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해도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방랑은, 아니 방황은, 실크로드 오지로 이어졌다. 수십 번 그 길에서 헤매는 동안 실크로드는 어느새 붓다로드로 바뀌어 있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토함산 석굴암의 가치를 탐구하는 답사여행이기도 했다. 좁게는 석굴사원 순례의 길이었다.

중국 개방정책 이래 이 순례의 길은 너무 편해졌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부방'은 관광지로 바뀌었다. 조용하던 불적(佛蹟)이 이제는 시끄러운 관광지로 바뀌어 나의 발길을 멀게 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히말라야 언저리, 티베트라든가 라닥, 아, 라닥, 거기 알치사원, 그리고 카라코롬 하이웨이, 이런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나는 관광지를 싫어한다. 소음만 가득한 곳, 나는 그런 곳을 싫어한다.

인도 성지(聖地) 순례의 길에 올랐다. 아니 인도 석굴사원 탐방에 올랐다. 그래서 엘로라 석굴과 아잔타 석굴 등을 감동하며 답사했다. 도처에 '불상'이 있었다. 불상(佛像)은 글자 그대로 '깨달은 이의 모습' 바로 '붓다 이미지'이다. 지역이나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나의 관심권 안에서 학구적 호기심을 자아냈다. 불상은 불교 도상학에 의해 원리는 같다.

하지만, 겉으로 들어난 모습은 조금씩 달랐다. 나는 시대미감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더 정확하게는 시대정신이란 말을 좋아한다. 훌륭한 미술작품 속에는 시대정신이 들어 있다. 거꾸로 표현하면, 시대정신이 결여된 작품은 그만큼 허접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상은 무엇인가. 깨달은 이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불상을 보러 다니면서, 나는 의문점이 강하게 들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실크로드건 붓다로드건, 길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이의 참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한다. 불상을 보라. 하지만 불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많고도 많은 지구상의 숱한 불상들. 그 불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불상 작가가 만든 것이 불상이지 않은가. 그래서 불상작가를 우리는 불모(佛母)라고 높여 불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렇다면 불상 작가는 깨달은 이란 말인가. 아니, 깨달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이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속된 표현으로, 깨닫지 않은 이들이 만든 불상은 모두 가짜란 말인가. 나의 의문은 계속 이어졌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작가 나부랭이(?)'가 만든 붓다 이미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아니,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불도(佛道)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아름다운 불상은 많고도 많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아름다움의 길을 찾았다.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불도는 더욱 멋있었다. 붓다로드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기원 1세기 무렵까지 '불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5백년간을 동양미술사에서는 '무불상 시대'라고 부른다. 불상의 기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마투라와 간다라, 이 두 군데를 주목하게 했다. 그 현장을 몇 번이고 답사하게 했다. 나는 무불상 시대의 의미를 높게 보고자 했다. 왜 불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세계의 많고도 많은 불상을 보러 다니면서, 나는 오히려 '불상 없던 시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였다. 석굴사원 순례의 길은 결국 '불상 지우기' 순례로 바뀔 때도 많았다. 깨달음의 경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나의 눈에 무슨 불상? 무슨 붓다 이미지?

아무튼 나는 길에 나설 것이다. 실크로드 방랑은 붓다로드 고행이 될지라도, 나는 길 위에 나설 것이다. 물론 나의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길 위에서 또 다시 길을 물을지 모른다. 길은 어디에 있어요? 노자(老子)가 말했던가.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길을 길이라고 하면 길은 아니다. 길은 양식화되면 길의 생명은 끊어진다. 길은 도전, 그 자체여야 한다. 늘 새롭게 꿈틀거리는 행보, 거기에 진정 길이 열린다(라고 믿고 싶다). 수행자나 예술가에게 있어 안주(安住)는 가장 무서운 적이지 않은가. 길은 길 위에 나설 때, 길의 의미를 안겨 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길 위에 나서려 한다. 물론 바보 같은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길에서 길이 어디냐고 묻는 그대여.

〈미술평론가, 가천대 명예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제9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 1 년 )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 불교 · 기독 학자, '종교 간 대화' 논하다

### 레페스포럼, 11~12일
### 제1회 심포지엄 개최

불교와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물과 기름일 수 밖에 없는가. 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상생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레페스 포럼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성북구 씨튼영성센터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같고 어디가 다른가: 종교 간 평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학자 12명이 모여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1박 2일 시간 동안 미리 준비한 발제문을 발표하고 서로 간의 견해를 이해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양대 문명의 대화"라면서 "유럽문명의 모체인 기독교가 아시아에 토착화해 가는 과정과 인도를 토양으로 탄생한 불교가 동진하며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정신 문명을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서로의 차이를 만드는 딱딱한 외피를 벗어내고 부드러운 공동의 지평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종교의 규제적 기능은 내적 규제가 아닌 외적인 관계를 제약하고 위계질서를 형성에 적용돼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종교의 영향력을 새로 변화시키는 일이 모든 종교에 주어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레페스 포럼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같고 어디가 다른가'를 주제로 씨튼영성센터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 · 기독교 간 같음 · 다름 이해**
**12명 학자 1박 2일 '끝장토론'**
**지도자간 의례적 대화는 한계**
**일반 신도도 대화 교육 필요해**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이 같은 동질성에 대한 고찰도 이뤄졌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타자의 깊은 관계를 통찰해 나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 연기적 깨달음의 출발이듯, 가장 높은 자인 예수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서 태어나는 비움에서 구원의 깨달음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해방신학자인 김근수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장은 두 종교의 특성을 분석한 뒤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강조하는 불교와 세상을 올바로 바꾸는 투쟁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는 인류에게 아낌없이 사랑받는 종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현재의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종교간 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는 "기독교는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며, 불교는 지혜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라며 "두 종교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둘의 특성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는다면 종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창조적 종교대화를 위한 제언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일부 종교지도자간의 의례적 대화나 학자들의 학술적 대화는 한계가 있다"며 "종교지도자와 성직자들은 일반 신자에게 열린 대화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다원주의 담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전통과 교리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종교세계에 대한 영적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측에서는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을 비롯해 김용표(동국대) · 이도흠(한양대) · 송현주(순천향대) · 류제동(성균관대)이, 원불교 측에서는 원영상(원광대) 등이 참여했다.

기독교 측에서는 김승철(일본 난잔대) · 이찬수(서울대) · 김근수(가톨릭해방신학연구소) · 손원영(서울기독대) · 정경일(새길기독교문화원) · 이관표(협성대)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 문화재청 11일… "통일신라 석탑 변화 양상 보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높이 6.12m의 규모에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된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 · 보충하여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최초로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됐고,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이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라며 "석탑 제작 추정 시기인 9~10세기에는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라 그 가치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이어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알라야식' 대한 세계 불교학의 시선들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국제저널 'IJBTC' 2호 발간

**저명학자 기획 논문 수록**
**다양한 연구 논문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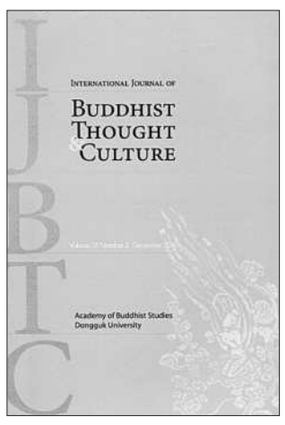
독일, 프랑, 중국 등서 활동 중인 세계 저명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만날 수 있는 불교학 국제저널이 발간됐다.

동국대학교(총장 보광)는 국내 유일 국제 불교학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혁신판 2호를 최근 발행했다. 지난해 발간 주체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변경돼 편집체제 등을 개편하고 두 번째 출판이다.

이번 〈IJBTC〉에는 'Exploring Alayavijnana(알라야식 탐구)'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 4편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4편,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알라야식 탐구'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은 알라야식에 대한 세계 불교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마르틴 델헤이(함부르크대)는 유가행파의 관념론 철학으로서 알라야식의 작용에 대한 가장 뛰어난 통찰을 보여준 안혜에 대해 논문을 기고했으며, 빈센트 엘싱어(파리고등교육원)는 불교인식론 전통에서 알라야식의 위상을 해명하기 위해 법칭의 관념론 및 전의의 상이한 이해를 개관했다. 스스무 오타케(하나조노대)는 인도불교에서 7종 식설의 전개를 추적했다. 한국의 김성철(금강대)은 원효가 3세6추의 3세를 알라야식으로 간주한 이후 이 설이 후대의 주류적 해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효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해 고찰했다.




기획논문 외에도 위대한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와 미륵에 대해 연구한 카렐 워너(런던대)의 연구 불교의 대사회적 태도에 대한 광징(홍콩대)의 연구, 경율론 삼장의 문헌학적 연구동향을 논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한 정진일(독일 괴팅겐학술원)의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논문이 수록됐다.

이번 〈IJBTC〉에 대해 불교학술원은 "이번 기획 논문들은 주로 논사들의 알라야식에 대한 이해를 분석해 알라야식 개념 변화를 도출했다"면서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알라야식에 대한 탐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마음과 의식에 대한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으로 발행되는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해 연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 韓불교학 연구 현황과 과제는?

### 세불연, 2월 10일 제1회 월례발표회

**장기과제 첫 월례 발표자리**
**새로운 연구과제 검토 논의**

한국불교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10일 만해관 B255에서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월례발표회의 첫 발표 자리다.

이날 발표회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동광 스님이 '한국 초기불교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최원섭 동국대 외래강사가 '한국 의상화엄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명계환 씨가 '한국 삼국유사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이복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가 '한국 화엄수행관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김한상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미옥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강사, 박보람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박서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장정태 삼국유사연구원장,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민태영 동국대 불교융합학과 수료, 김지연 금강대 연구교수가 논평자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회에 대해 세계불교학연구소는 "종래의 불교학의 여러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검토해 불교학 연구의 빈틈을 메꾸고 미래 과제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며 "아울러 우리 불교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신예들의 등용문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7년 불교대학 50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4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 | | |
|---|---|---|
| 1년차 | 과목 |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대승불교와 밀교 5. 정토경 6.화엄경 |
| | 교수진 | 법산 경일스님(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종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 2년차 | 과목 |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
| | 교수진 |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촬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1월 2일부터
■ 문의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9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7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9일(목) 개강]
● 한글불교의식반 [3월 11일(토)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 [3월 8일(수)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불기 2561(2017)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5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5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과정 \ 학기 | 1학년 | 2학년 |
|---|---|---|
| 교 재 | 초발심,사미율의,치문 | 서장,도서,선요,절요 |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 과정 \ 학기 | 1년 | 2년 |
|---|---|---|
| 교 재 | 능엄경 | 금강경 |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장 법성 강원장 호명 합장

# 증애심 소멸, 정법 현현의 첩경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승찬(僧璨: ?~606)대사는 출가 전에 풍질(風疾)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 병고에 시달리던 그가 어느 날 혜가 스님을 찾아갔다. 대뜸 자신의 병이 죄의 소산이니 자신의 죄를 참회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혜가(慧可)가 "죄를 나에게 가져 오라. 그러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하였다. 잠깐 생각하던 승찬이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혜가가 다시 "그대의 죄는 내가 참회시켰다. 그대는 이제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 살아가라" 하였다.

두 사람은 대화를 더 나눴다.

"지금 스님을 뵈옵고 승보(僧寶)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佛寶)와 법보(法寶)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며,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제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른바 안심법문(安心法門)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이 이야기는 승찬대사의 출가 인연 이야기다. 승보의 보배구슬과 같다고 승찬(僧璨)이라 이름을 지었다. 병든 몸으로 출가를 했으나 나중에 복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병도 나았다고 한다. 적두찬(赤頭璨)이란 별명도 얻었는데 병을 앓고 난 뒤 머리털이 모두 빠져 대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가의 법을 전해 받은 승찬은 선종 3조가 되었으나 한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名著) 〈신심명(信心銘)〉은 선종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역작이다. 4언 146구 584자로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선의 핵심요체를 담고 있는 운문형식의 명체(銘體)의 글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 없으면 환히 트여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많이 회자되는 〈신심명〉의 처음 나오는 4구다. 여기서 말하는 도(道)는 깨달음 자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말한다. 무상정각(無上正覺) 혹은 무상대도(無上大道)라고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열반경〉에도 '마음이 있는 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하였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지도무난'이다.

선가에서 해 온 속된 말에 '도를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고 하기도 했다. 간택이란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식을 말한다.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차별 속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소견을 가질 때 마음에 집착이 생기며, 이 집착으로 인해 도를 등지게 된다.

'무심이 도다(無心是道)'라는 말이 있듯이 식심(識心)이 일어나 마음이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되면 도의 본체에 계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를 장애하는 근본 요인은 바로 식심 분별이므로 이것만 없으면 도는 쉬운 것이란 말이다.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 움직이는 인간의 의식작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어떤 관념의 고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다. 도를 보는 데 있어서 증애심이 있으면 정법을 보는 눈이 흐려져 도의 당체를 보지 못하므로 증애심이 없어지기만 하면 도는 하나도 막힘없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4구가 〈신심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법난을 만나 승찬은 환공산(皖公山)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다 수(隋)나라 개황때(592) 4조가 된 도신(道信)을 만난다. 〈경덕전등록〉 3권에 도신에게 전한 전법게(傳法偈)가 소개되어 있다.

"꽃씨가 비록 땅에 심어져 땅에서 씨가 꽃으로 자라지만 아무도 씨를 심지 않는다면 꽃이 땅에서 필 수가 없으리라."(花種雖因地 從地種花生 若無人下種 花地盡無生)

승찬대사의 입적(入寂)에 대해서는 나무 밑에서 합장을 하고 선채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승찬대사가 최초로 입망(立亡)을 한 사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 생로병사의 고해를 건너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③금강경 초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압축하여 일백육십자로 줄인 경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금강경은 보살10지(菩薩十地)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혜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혜지, 법운지와 4선정(四禪定)의 4선인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 사선(四禪)과 사정(四定)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뜻을 담아 나타낸 경입니다.

보살 초, 2지가 초선과 공무변처정이고, 3, 4지가 이선과 식무변처정이며, 5, 6지가 삼선과 무소유처정이고, 7, 8지가 사선과 비상비비상처정이며, 9, 10지가 멸진정(滅盡定)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오온개공하여 도일체고액이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온(五蘊),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생, 노, 병, 사의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경 32분 가운데 '법회유인분 제 1'부터 '장엄정토분 제 10'까지는 색이 공함을, '무위복승분 제 11'부터 '지경공덕분 제 15'까지는 수가 공함을, '능정업장분 제 16'부터 '법신비상분 제 26'까지는 상이 공함을, '무단무멸분 제 27'부터 '지견불생분 제 31'까지는 행이 공함을, '응화비진분 제32'는 식이 공하여 멸진정에 해당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순번 | 1 번 | 2 번 | 3 번 | 4 번 | 5 번 | |
|---|---|---|---|---|---|---|
| 보살10지 | 초, 2지 | 3, 4지 | 5, 6지 | 7, 8지 | 9, 10지 | 등 각 (等覺) |
| 4 선 | 초 선 | 2 선 | 3 선 | 4 선 | | |
| 4 정 | 공무변처정 | 식무변처정 | 무소유처정 | 비상비비상처정 | 멸진정 | 묘 각 (妙覺) |
| 5 온 | 색 | 수 | 상 | 행 | 식 | |
| 금강경 32분 | 제1분 제10분 | 제11분, 제15분 | 제16분 제26분 | 제27분 제31분 | 제32분 | |

보살 10지는 비록 깨달음에 차등이 있으나 모두 성인(聖人)의 경지입니다.

금강경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행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깨달음은 보살 10지에 해당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행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며, 과연 우리들은 이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6조 혜능 선사는 일자무식의 가난한 나무꾼으로 어느 날 여관방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읽는 금강경 구절인,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날 것이니라. 마땅히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듣고 홀연히 깨달고 훗날 5조 홍인 선사를 뵙고 다시 크게 깨닫게 됩니다.

황벽 선사는, "이른바 밝고 정밀한 성품인 일정명(一精明)이 나뉘어 6화합(六和合)이 된다고 하였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一心)이요, 6화합이란 6근으로, 이 6근은 각기 6진과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제각기 합한다. 그런 가운데 6식을 내어 18계(十八界)가 된다. 만약 이 18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6화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어느 날의 일기

"티베트의 망캉 터미널은 버스와 트럭이 함께 사용하는데 정기노선버스는 일주일에 세 번이고 트럭은 목재며 시멘트 등을 싣고 줄곧 드나듭니다. 이틀째 온수는커녕 찬물도 나오지 않는 터미널 2층의 낡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썰렁하게 몸살을 앓은 후 터미널 인근의 국수와 찐빵을 파는 가게의 늙은 아줌마와 타협이 어렵게 이루어져 코리안 누들(신라면) 5개 값을 선 지불 후 아궁이에 불을 지펴 한 솥의 뜨신 물로 가려진 곳을 찾아 늙은 아줌마가 곁눈질을 하든 말든 홀라당 벗고 땀 지린, 곰팡이로 찌든 몸뚱이를 번개처럼 빠르게 씻었습니다. 적은 물이었지만 그래도 신체의 중요 부분은 깔끔, 말끔은 아니더라도 치약을 비누삼아 씻었습니다. 대충 빠른 목욕을 끝낸 후 국수집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날아갈듯 가뿐하게 졸고 있는데 예쁘고 키 큰, 그러나 형색이 말이 아닌 아가씨가 빼꼼히 얼굴만 들이민 채 '워 야오 취 망캉(나는 망캉에 가야합니다)'을 제법 큰소리로 슬픔에 젖은 지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옷에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어느 몹쓸 사내의 몹쓸 인연이 툭 튀어 나온 아가씨의 배 안에서 슬프게 힘에 겨워 보입니다. 곱빼기 국수 한 그릇에 찐빵 한 접시를 내밀자 그녀는 앉지도 않고 서있는 자세로 몇 초 사이에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말끔히 들이켰습니다. 먹지 않은 찐빵을 비닐봉지에 담아 돈 몇 푼과 배낭속의 겨울용 파카를 그녀에게 입혀주자 그녀는 고맙다는 눈인사도 없이 빵 봉지를 팽개치고 입혀준 파카도 벗어 던지며 눈발이 듬성듬성 날리는 거리로 사라지고 맙니다. '워 야오 취 망캉'을 외치면서…. 망캉에 와서 망캉을 찾는 처절할 만큼 가엾은 배부른 아가씨는 진리 속에서 진리를 찾는 항시 배고픈 나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콧등이 찡하게 가슴이 먹먹하게 아팠습니다."

티베트에서 머문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이 숱하게 널려있다. 몇 권의 책으로 써 내려가도 부족할 만큼 티베트는 별천지였고 새로운 환경의 고산증을 달고 다니는 고통과 아픔의 고행(苦行)이었다.

가난한 불교나라, 오체투지의 신앙이 생활화 된 나라, 옴 마니 반메 훔이 생활염불이 되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감사할 줄 아는 나라, 남자나 여자나 키 크고 건장한, 행복을 키우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나라, 진솔함이 무엇인지 해맑은 미소로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 그립다. 일상생활이 그립다.

티베트의 3대 도시인 라싸와 시가채, 창뚜에는 그럴듯한 호텔이 버젓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는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전기불도 수줍어 가물거리는 게스트하우스가 숨죽이며 띄엄띄엄 박혀 있을 뿐이다. 배부른 아가씨를 만난 망캉 역시 숙소의 화장실은 건물 밖 터미널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했고 방마다 공급되는 세숫대야에다 소변 등의 간단한 것은 처리하도록 허용된다. 당시 나는 울고 싶어도 목이 부어 울 수도 없고 말하고 싶어도 입술이 부르터 자유롭지 못할 때였다.

그때 국수집에서 번갯불처럼 목욕하고 나른한 행복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을때 배 부른 아가씨를 만난 것이다. 망캉에 와서도 망캉에 가야한다는 아가씨의 외침은 눈발로 흩어지는 슬프디 슬픈 절규였다. 몹쓸 인연은 저리도 힘겹고 질긴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난 뒤의 후유증인 것이다. 착한 인연은 행복을 키우지만 나쁜 인연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둘이 있을 때도 틈이 생기고 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몹쓸 인연은 자유를 빼앗아간다
## 혼자든 둘이든 마음 비우고 살라

홀수일 때는 외로워도 기다림의 기대가 설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짝수일 때의 외로움은 삭풍이 몰아치는 허허벌판의 비애와 절망을 느낄 터이다.

남영추라는 사람이 도(道)를 배우기 위해 혼자서 노자를 찾아왔다. 그의 장황한 말을 듣고 노자는 꾸짖는다. '그대는 도를 배우겠다며 이리도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가?' 생각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도 또 다른 마음속 사람으로 질타한 것이다. 홀수든 짝수든 마음 비우며 살 일이다.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 "승보(僧寶)여, 희유의 공양 받으소서!"

## 조계종부산聯, 제6회 성도재일기념 승보공양대법회


1월 8일 조계종부산연합회의 승보공양대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승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 · 법 · 승 삼보를 위호할 것을 다짐했다.

**성도재일 맞아 승보 의미 전달**
**삼보 위호하는 불자될 것 다짐**
**신임 회장 심산 스님 취임식도**
**"재가 안거 정착 노력할 것"**

대중들은 지극한 마음을 담아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렸다. 성도(成道)의 참 진리를 잇는 승보(僧寶)에 대한 극의로 법회는 환희 그 자체였다. 공양을 올린 후 초를 밝힌 대중에게는 꽃비가 내렸다. 대중을 향해 흩뿌린 꽃잎에는 시방세계 중생을 위해 깨달음의 법을 회향하겠다는 스님들의 의지가 담겼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8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승보공양대법회'를 개최했다. 승보공양대법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승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 · 법 · 승 삼보를 위호하는 불자들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전법에 매진해 깨달음의 법을 널리 펼치겠다는 스님들의 서원을 굳게 다지는 시간이다.

먼저 금강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독경 소리로 시작했다. 이어 조계종원로의원 정관 스님, 전 조계종 교육 원장 무비 스님, 통도사 선덕 법산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비롯해 120여명의 조계종 스님들이 법석에 올랐다. 자리에 참석한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과 신도 단체 및 각 기관장 단체장들은 공양물을 스님께 올렸으며 1,000명의 대중들은 함께 합장해 마음을 모았다.

스님들은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관 스님은 "온 국민이 화합하는 한 해로 덕을 이루고 만드는 시간이 되자"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철저한 자기 수행과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으로 몸과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스님들의 본래 모습이며 자세"라며 "스님이 스님다우면 불법은 저절로 존중된다. 오늘 이 공양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잘하라는 경책으로 삼고 기쁘게 여기겠다"고 전했다.

법산 스님은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정성 어린 공양 공덕이 헛되지 않게 출가의 초심으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지니자. 선정과 지혜 부지런히 닦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금강반야를 깨달아 모든 생명과 기쁨을 함께 하는 서원을 굳게 다짐하자"고 독려했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갖길 바란다"며 "생로병사를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 재가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무명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 하루를 살아도 바르고 굳세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아울러 "청정한 승가와 삼보를 예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성을 꽃피우며 진흙 속에서 피어난 백련과 같이 온 세상에 깨우침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하겠나이다"며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승보공양에 앞서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前 회장 수진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중요 활동을 설명하며 "법대로 수행하고 법대로 세상에 법을 전하는 그 의미, 그것은 진세토록 거울인 것"이라며 "오늘 새롭게 취임하는 심산 스님은 현실적 감각과 시대의 흐름을 잘 인지하는 스님으로서 향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의 행보에 빛살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신임회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 수행과 전법, 그리고 자비 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앞으로 재가 안거 수행 정착과 전법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축사로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시장상 개인부문에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단체부문에 관음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 대한불교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사)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은 1월 10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엔 종정 심월 스님, 부종정 원봉 스님, 승정원장 보경 스님, 총무원장 대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은 스님의 신년사, 종회의장 해륜 스님의 발원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은 스님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탐욕과 다툼, 불통으로 인한 걱정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평화를 통해 탐 · 진 · 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수행자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끌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조동종은 연수교육에서 실시한 논문법계고시에 합격한 천관 스님, 범일 스님, 송담 스님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헌 옷으로 지은 '희망새싹 장학금'

##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장학기금 수여식



불교 NGO 기관인 희망씨앗월드웨어가 헌 옷을 판매해 조성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따뜻함을 전했다.

NGO 희망씨앗월드웨어(이사장 범국, 이하 희망씨앗)는 1월 6일 경주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희망씨앗은 티베트 난민들을 지원하고자 2015년 경주에서 창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유학한 이사장 범국 스님이 난민들의 현실을 도와 줄 방법을 찾으며 시작한 단체다. 현재 국내 봉사자 1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경주에 판매처를 두고 국내 헌 옷과 모자, 가방 등을 기부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2월 울산 호계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고 새 출발할 예정이다.

희망씨앗은 이날 불교 문화대학 재학생 5명에게 총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범국 스님은 "어려운 환경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10년 전부터 접촉한 난민들과 접촉하고 어려운 실정을 직접 봤다. 도움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범국 스님은 현재 동국대 경주 캠퍼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에서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과 티베트 교재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NGO 희망씨앗월드웨어를 정식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고 국내 복지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대한불교원효종, 재도약 발판 마련 '다짐'

##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원효 스님의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원효종(종정 정광) 총무원(총무원장 우석)은 1월 9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인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광 스님과 원로원장 창해 스님, 자문위원장 금봉 스님, 종회의장 태일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규정원장 성암 스님, 총무부원장 보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천년의 원효 사상을 본받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수행정진하여, 정유년 새해에는 오로지 부처님처럼 대장부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과 자문위원 금봉 스님은 "원효종주 보살도를 따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날까지 종도 모두가 화합해 나감에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오늘날 혼란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 지극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찾는다면 밝은 해처럼 둥글고 모남 없는 화합과 상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종도 간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1월 9일 2017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경북 경주시 충현로에 총본산을 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은 오는 6월에 종회의원 선출과 선거인단을 구성해 10월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11월 총무원장 이 · 취임을 가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새싹불자들 "스님들 삶 배우고 싶어요"

## 홍법사, 어린이 작심단기출가



겨울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어린이 작심단기 출가를 1월 11~17일 개최했다.〈사진〉 어린이 20여명은 입재식서 작심단기출가 기간 동안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며 행실을 맑히는 깨끗한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홍법사는 출가 기간 동안 수심자경문을 통해 한자를 배우며 발우공양과 자비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푸드아트테라피, 전래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임윤정(청학초3) 학생은 "부모님께서 스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잘 보고 배우라 하셨다"며 "좋은 친구도 만나고 훌륭한 가르침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핀 부평 용천사. 부처님 탄생이래 삼천년에 한번 피는 불사조 불사신 불광도량 달마조계종 부평 용천사 도량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되어 성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와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이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어 만년만법을 다스릴 능력자 성인 도인 진인 선녀 신선들에게 태양의 무량자로 온 생명을 구하는 도량으로 하강하신 우담발화 병겁이 시작되는 2014년 가보세 가보세 사부작 사부작 병신 정유년에는 병든 닭 병든닭 무술년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시대를 다스릴 초능력 도통군자 일류스승되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부처님께서도 루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궁통 철야기도 대용맹정진 양력 2017년 2월 1일 ~ 2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박 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볍겁에 전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7년 2월 1일(음력 1월 5일) 수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7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목요일 오후 9시 무박 2일 해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무박 2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662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정유년 입춘 불공을 왜 하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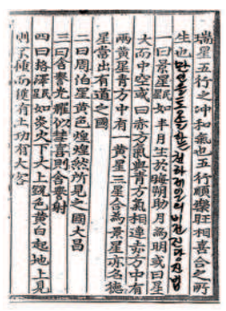
사람에 병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장수하고 방편도 하는 것이 입춘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으며 입춘일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삼시구충과 각종 빙의신, 모태유산으로 탄생못한 혼들이 입춘일전부터 입춘날에 오장육부와 머리골, 뼈골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질병을 발생 죽고사는 병을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고, 특히 삼재나 삼충이들면 상시구충들이 잡신들을 총 동원하여 수마, 병마, 빙의신, 허주책쥐귀신들이 정신속에 숨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만들어 보증 싸움 이혼 투기 삼재 관재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용천사 태일대사**만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한방 양방에서도 모르는 귀신병을 입춘날 본인의 양말에다 방편하여 악운의 삼재와 질병및 흉살 고통을 빛으로 제도하며 재수대통으로 수화 병마 인마까지도 해탈되어 건강 사업 진급 학업 취직 결혼 장수 성취한다.

● 입춘불공기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5일까지
● 기 도 비 : 10만원〈삼재든 분은 1인당 33만원 양말과 함께 십원짜리동전 12개 꼭 준비함〉

현대의술도 잡지 못하는 삼시구충은 루진통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한다.
삼시구충들은 동지부터 입춘까지 인간들의 오장과 육부와 육신에 파고 들어가 아프게 하며 각종 빙의신 허주신 등을 번식시킨다.

사람의 육신속에 각종병을 일으키는 삼시구충 병마귀신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선운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천일기도 회향법회.

# 선운사 '약사여래 천일기도' 회향

## 관음 천일기도 2월 11일 입재

지난 2014년 4월 입재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의 약사여래 천일기도 회향법회가 1월 8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렸다.

회향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학장 환성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선운사 신도회 임원, 군산 관음사 불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천일기도를 회향한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선운사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0년 모은 재물보다 하루 마음을 밝히는 선근 공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단히 기도정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성 스님은 축사에서 "기도는 진실해야 하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청정해야 한다"며 "천일기도를 회향한 대중은 삼보의 위신력으로 평안과 안녕이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스님, 선운사 신도회는 약사여래 천일기도를 회향한 성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회향을 축하했다.

이번에 약사여래 천일기도를 회향한 성진 스님은 선운사에서만 2번의 천일기도를 성만했으며 내장사를 포함해 총 3번의 천일기도를 성만했다. 한편 선운사는 오는 2월 11일 관음 천일기도를 입재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포근한 이불에 情 담아드려요

##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 지원사업 펼쳐



광주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캄보디아 쉼터를 방문해 이불을 전달한 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불교계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불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월 1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광주지역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를 비롯해 문빈정사 · 만덕사 · 한마음선원 · 정안사 · 달마사 · 비전사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이불은 1월 2일 1차로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쉼터 5곳에 30채를, 7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7개국 20명을 선정해 20채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하는 사업장 기숙사와 컨테이너 박스로 된 기숙사 9곳 50명을 선정해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2차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 지내다 이곳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는 것은 어디서나 가장 좋은 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눔 의미를 설명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의 따뜻한 정이 이불과 함께 전해져 우리나라에서 정착해가는 외국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계의 겨울이불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늘 소외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불교계의 따뜻한 마음과 불교국가에서 온 이들에게 불교공동체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올해 처음 진행됐다.

캄보디아 쉼터에서 기거하는 반야(29) 씨는 이불을 전달받은 뒤 "따뜻한 이불만큼이나 한국인들의 정성어린 마음에 감사하다"며 "우리를 늘 신경 써주시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불을 전달받은 캄보디아 쉼터에는 매일 7~8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지낸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길 때 잠시 쉬었다 가는 숙소로 이용되며, 주말에는 30여 근로자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현재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방을 얻어 주고 불교계에서 쌀과 운영비, 일부 부식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성 센터장은 "캄보디아 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쉼터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편"이라며 "불교계의 도움을 받곤 있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찰서 키우는 청소년리더십

## 2월 11~13일, 광주 선덕사서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겨울 캠프가 열린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오는 2월 11~13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 선덕사에서 청소년리더십캠프를 개최한다.

'무등에 올라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캠프는 △리더십 프로그램 △무등산 에코트레킹(원효사~토끼봉~규봉암~장불재~동화사터~원효사)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된다. 캠프에는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과 유장석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참여한다.

올해로 4회째인 청소년리더십캠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불교적 이름인 무등산(無等山)은 산골짜기마다 불교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심신을 단련하기에도 좋아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행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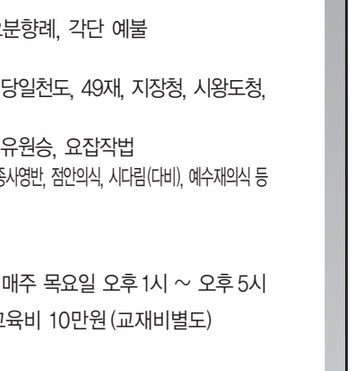
# (사)착한벗들, 어린이 겨울캠프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2017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를 개최했다.〈사진〉

'마음속의 보물을 찾아요'라는 주제로 1월 6~8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 참좋은우리절에서 열린 겨울캠프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16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명 등 총 47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겨울캠프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으로 인성을 가꾸고, 세계문화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사찰예절, 발우공양, 구연동화, 미니올림픽, 내 마음속의 부처님 표현, 다문화음식 만들기, 눈썰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국가 동량으로 성장해주길"

## 백산장학재단, 청소년 장학금 2,500만원 지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백산장학재단(대표이사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미래의 꿈나무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사진〉

완주 송광사는 1월 5일 송광사 사운당에서 백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동화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혜광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단암사 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백산장학재단은 금산고 정병진 군과 원광대 최지은 양 등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대상 학생들은 1월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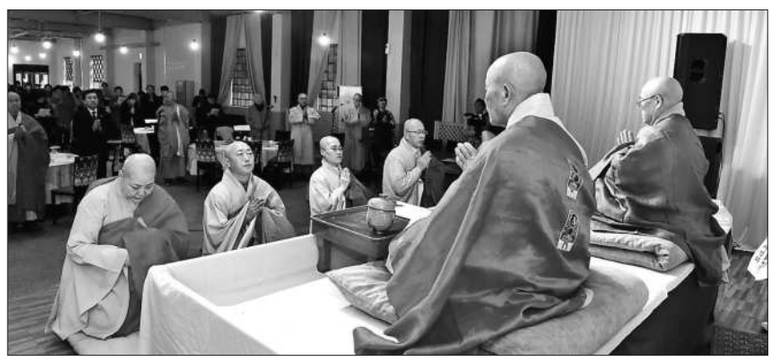
올해로 7회째 장학금을 전달한 백산장학재단은 그동안 연인원 208명의 학생들에게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송광사는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금란가사 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송광사 불자들은 42벌의 금란가사를 제작해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새해에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신년하례법회에 참여한 대중이 지역 원로스님들에게 세알배례를 올리고 있다.

광주 동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법회가 열렸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무등)는 1월 7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정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동구 발전과 시민 행복을 기원하며 회원들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새해를 여는 첫 법회에는 세심정사 회주 지암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협의회장 무등 스님을 비롯한 동구지역 회원사찰 스님들과 박주선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동구청불자회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증심사 합창단 무대를 시작으로 헌향, 헌화, 불교의례에 이어 동구지역 원로스님들에 대한 세알배례, 덕담, 축사, 자비나눔 장학금 전달, 발원문 봉독, 사홍서원, 축하공연, 저녁공양 등이 진행됐다.

이날 원로스님들은 참가대중의 세알배례를 받고 "나라살림이 힘들지만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당부하며 "정유년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무등 스님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삶의 지혜는 아름다운 인연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도 동구지역 스님들과 불자,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의원은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부처님의 높은 덕이 이 사회에 실천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전달식도 이어졌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동구지역 청소년 장학금과 쌀 1000kg을 김성환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지난해 봉행한 무등산 산신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조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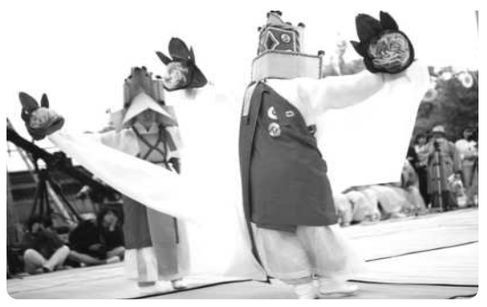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戒)의 연못은 청량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청량하게 해주나니, 만약 지혜 있는 이가 이 연못에 들면 무명의 어둠과 장애가 영원히 멸해 없어지리라.

– 마등가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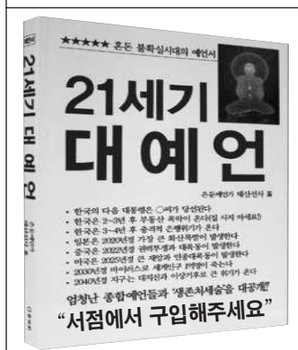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타로 카드 수강**
1개월 배우면 상담 가능
(전화. 출장 지도)
전화로 모든 인생고민 상담
* 모든 상담자 확실한 효과
변비환 무료 증정
010-2748-632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010-3871-3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김해)
010-3858-921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8556-0015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방사 드립니다**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무료로 퇴불 해 드립니다**
031-591-9023
보현선원 진명

**산속에서 조용히사실 분을 모십니다**
부부 원함, 농사땅 2천평,
컨테이너박스 4개
(경북 청송)
010-4842-7228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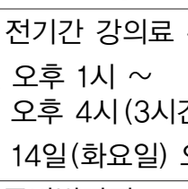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기도치료법 一名 염력요법**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 최초의 전문기도 치료사는 부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업으로 삼아도 될것입니다.
• 70대 중반인 본인은 현재 충분한 용돈을 벌어서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 (정보석)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 용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br>◆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br>◆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br>◆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br>◆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정성을 다해 훌륭한 스승 모시기를 부처님 섬기듯 하며, 성냄과 질투와 탐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경의 가르침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 반주삼매경 -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아늑하고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3동 50평)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황토방
- 가액 : 4억 (금융대출 : 2억 5천별도)

▶ 토굴 ◀
- 위치 : 경북 청도
- 총부지 : 280여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 가액 : 1억 4,500만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 사찰(급)안내
- 수원 포교원 양도
- 분양평수270㎡. 법당등전용면적150㎡
- 전기판넬과 수미단은 보존
- 8층 중에4층. 주방. 도시가스.상업용전기
- 가액 : 3억5천만원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상담문의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 인천시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지하철역 5분거리 주택밀집지역
- 토지 총 682㎡ (약 200평)
- 목조법당 75㎡ (약 22평), 요사채 9㎡ (약 28평)
- 가액 : 6억

010-3426-9393(포교원전문)
070-8154-9393

##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 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성지 금정산 등산로접
- 토지 : 600여평 점유, 해발 300m
- 건물 : 법당10여평, 동남향, 창건80년
- 주지실, 요사채(구청 건축물대장)
- 약수터,주말 등산객 많음
- 양도 : 몽땅 2억 5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 여항산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개)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 건물 2층 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 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은행1억5천 대출가능)

010-7169-987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21-1번지
- 종교부지 680평, 법당 35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전세), 4억 5천(양도)

010-4876-1042 스님 직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 3동, 32평1동 25평2동
- 특징: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 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 10분거리
-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사찰 연수원 팬션 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소재
- 독채 벽돌조 32평, 등기필 사찰(개인소유)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 2차선 큰길변 남향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854평, 산신각, 요사채
- 방 14개, 경치 최고
- 사찰 겸 고시원, 건강원 최적지
- 가액 : 7억

010-6763-8866

##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 (급)암자같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시설특A급 몸만 오시면됨. 법당1 삼존불완비
- 스님방1 거실1 주방1 욕실1 창고1 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 가액 : 보1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600만원. 보시고 결정

010-3550-0132

## 사 찰 안 내
- 위치 : 창녕 남지읍
- 평수: 220평중 문중땅 일부분 포함
- 시장 및 남지 IC 2~3분 거리
- 도로변에 위치, 교통 편리함, 건물 2채
- 역학인 및 무속인에 적합한 위치
- 가액: 9,50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식기류 일체)

010-8855-1738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 사 찰 전 세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95-3
- 대지 184평, 법당전체 60평 사용함
- 사용가능 총 평수 약 500평
- 삼존불 약사여래불 목불 전체다임 주차장완비 황토옛날가옥 100년 넘음 몸만오시면 됨 전체 완벽하게 다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010-6674-1356
010-4496-606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 토지 : 총 59평 건평45평 (2층법당 30평)
- 건물:법당건물 산신각 지장전
- 수세식화장실2개, 지대방3개 공양간1개,창고1개,넓은 친견실1개
- 난방: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 가액 :2,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없음
- 소백산 밑 풍기온천 5분거리

010-4466-0408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 욕실, 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 토 지 양 도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117번지
- 국유림내 사유지 전 825평을 저가 양도하고져 하며 지방도접, 하천변 남향, 전기도로, 계단식 토목공사 이용에 적합한 분은 전화주세요

010-8899-8899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중앙동 최고 요지
- 부근 : 시청 아파트 올해 입주예정, 대단위 아파트
- 5층 상가 건물 중 3층 40평
- 삼존불, 지장소불, 관음소불, 약사불,산신각, 칠성각, 2,4층도 사용가능
- 큰방1개, 공양간1, 화장실2개, 시설A급 주변환경 제의식 민원 無
- 모든시설 집기완벽,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010-9337-7766

## 사찰하실 분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 IC 5분거리
- 대지 200평
- 건평 77평(등기면적) (40평 별도 공간)
- 임야 155평 산속별장(다용도 사용가능)
- 가액 : 3억 7천

010-5398-252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심권) 큰사찰
- 2,700평, 대웅전, 요사채 등
- 계약 후 잔금은 담보 대출 지불 가능
- 가액 : 60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후 답사 및 절충 가능 꼭 하실 분만 상담 가능 수고비는 무상보시

010-7735-5133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 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 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정가 : 90,000원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 불교식 다이어트 · 서적 · 상품 해외서 '열풍'

## 마케팅 효과 뛰어나… 런던불교센터 싱하마나 씨
## "브렉시트 · 트럼프 당선으로 불안한 미래, 불교가 달랠 것"


트렌디한 술집으로 유명한 '붓다 바(Buddha's Bar)'는 체인점 15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곧 20주년을 맞이한다. 사진출처=the guardian

불교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마케팅이 넘치는 세상이다.

해외에서는 새해 다이어트 요법으로 붓다식 다이어트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도서 〈붓다의 다이어트(원제 Buddha's Diet)〉가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푸드트럭 음식으로 입소문이 난 '붓다의 발우(Buddha's bowls)'는 영국 소매업체 기업인 '막스 앤 스펜서'에 입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술집으로 유명한 '붓다 바(Buddha's Bar)'는 체인점 15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곧 20주년을 맞이한다.

이처럼 불교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런던불교센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싱하마나 씨는 불교적 콘텐츠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불교를 컨셉으로 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며 "불교는 신비로우면서도 성스럽지만 종교적인 느낌을 주지 않게 사람들에게 평화, 에너지, 편안함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불교적 콘텐츠의 활용은 마음챙김에서 시작됐다. 마음챙김은 명상적 기법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됐다.

싱하마나 씨는 "'영리한 PR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알아채고 경제활동에 불교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브랜딩과 마케팅에서 불교적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매력적인 것으로 변신한다"고 말했다.

〈붓다의 다이어트〉의 공동저자 댄 지그몬드는 스님이다. 간헐적 단식은 불교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수행 중 하나다. 지그몬드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가 다이어트에서 적절한 설득력을 심어준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적

**책 〈붓다의 다이어트〉, '붓다 바' 등 불교 관련 콘텐츠, 평화 이미지 연상**
**"마케팅에 '불교' 사용하는 순간 매력적인 것으로 변신할 수 있어"**

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천천히 식사하되 대신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중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불교도들은 오래전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그몬드 스님은 "실제 부처님은 날씬했다. '붓다의 발우'는 명상적으로 먹는 방법에서 비롯됐으며, 발우의 모양도 부처님의 머리모양을 본 따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은 관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이 싱하마나 씨도 많은 업체들이 불교를 소재로 브랜딩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싱하마나 씨는 "불자들은 불교를 소재로 콘텐츠화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반응 없이 느긋한 것 같다. 지금까지 한번도 '막스 앤 스펜서'에 붓다의 발우가 입점한다는 사실로 불자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붓다 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싱하마나씨는 "'붓다 바'의 공간도 불교 사원의 콘셉트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음악도 거리가 먼 것들"이라며 "자카르타 지점에서는 종교를 폄훼한다고 비춰져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두바이점에서는 불상이 우상숭배로 비춰져 많은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다. 불교는 의식의 명료함과 알아차림을 장려하는 종교다. 알코올 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상업적으로든 비상업적으로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제임스 셰헌 트라이사이클 편집장은 "만일 당신이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팔려고 할 때 정신적 충만과 평화 등을 약속하는 것들로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싱하마나 씨는 이런 불교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에 대해 "브렉시트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래의 암울함으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불교가 주는 평온함, 절제를 통해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스리랑카, 베삭의 날 UN 공휴일 지정 '촉구'

## 니말 보파지 의원, 1월 8일 국제불교도세미나에 제안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제불교도세미나에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길 제안했다. 사진출처=zimbio

스리랑카가 불교도들의 축제인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길 제안했다.

영국 조간신문 'dailymirror'는 1월 8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의회개혁 및 미디어 부처장 니말 보파지의 발표를 인용,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제불교도세미나에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더불어 2017년 UN 베삭의 날 기념식을 스리랑카서 치르길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dailymirror'에 따르면 부처님 탄생 · 깨달음 · 죽음을 기념하는 베삭의 날은 1999년 'UN 공식 축하의 날'로 정해졌다. 당시 유엔 총회 의원 193명은 락쉬만 카디르가마르 前 유엔 외무부장관이 베삭의 날 기념을 관장토록 지정했으며, 규약에 따라 UN 공휴일이 아닌 경우 직원들은 보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니말 보파지 의원은 "5월 12~14일 UN 베삭의 날 축제가 열리면 전 세계 1,000여 명이 넘는 불자 대표단이 스리랑카 중부 도시 칸디의 말와테 · 아스기리야 대승원을 방문한다"며 "불교도인 UN 직원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베삭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UN은 직원들의 종교선택 자유를 존중, 지난해 1월 총회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식 공휴일 9개와 임시 공휴일 7개를 선정했다.

임시 공휴일은 불교 베삭의 날(5월 10일), 유대교 속죄일(9월 29일), 힌두교 디왈리(10월 19일) 등 6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엔 직원들은 상관에 미리 보고한단 전제하에 지정된 임시 공휴일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동성결혼 불자 "佛性은 성적 정체성 존중"

## 1월 9일 채의흠 씨 결혼식서 달라이라마 인용


1월 9일 동성결혼식을 올린 채의흠 · 요요 부부. 동성애 불자로 당당한 삶을 산 채의흠 씨(오른쪽)는 이웃종교인 요요 씨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TAIPEI TIMES

대만 한 교회서 동성 결혼식이 열린 가운데, 부부 중 1명이 불자로서 동성과 결혼을 한 것이 "전혀 거리낄 것 없다"고 발언해 화제다.

대만 영자지 'TAIPEI TIMES'는 1월 9일(현지시간) 타이완시 동광라이트 장로교회서 동성결혼식을 올린 채의흠 · 요요 부부와 각자의 종교가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불자인 채 씨는 불교가 성적 소수자로 사는 것이 '떳떳하다'며, 과거 인도서 달라이라마와 해후한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 인도 다름살라서 열린 인권회의에 참석해 달라이라마에게 성적 소수자도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자가 동성애자인 경우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매우 궁금했습니다."

채 씨는 "달라이라마는 부처가 되는 것과 성적 지향성은 아무 상관없으며, 오직 끈기를 가지고 불성을 추구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음을 설명해줬다"며 "이후 불자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지니게 됐다. 전 세계 불교 성지 순례도 다녀오는 등 불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웃종교 신자인 요요 씨의 경험은 조금 달랐다.

요요 씨는 "목사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평생 기독교리를 배웠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교육을 받았다"며 "유년시절 가족과 사이는 좋았지만 다른 많은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들처럼 가족들로부터 성적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고 응원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친구가 없었고, 자라는 동안 자신이 '정상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위로하곤 했다"고 고백했다.

채 씨는 성적 소수자에 배타적인 이웃종교 성향에 대해 "배우자의 종교를 존중한다. 요요의 가족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회엔 사일러스 왕 목사와 카르마 게르메 린포체 티베트 승려가 참석해 결혼식 주례를 봤다.

이승희 기자

# "'봄, 여름 그리고 봄' 한국 불교영화 최고"

## 美영화 평론가 한국 불교 영화 호평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장면 중 일부.

미국 한 영화관서 새해를 맞아 불교 영화 4편을 시리즈로 상영하는 가운데, 한국영화 2편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선정된 영화는 바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버드맨' △ 해롤드 래미스의 '사랑의 블랙홀'이다.

미국 덴버에 위치한 '씨 필름 센터(Sie Film center)'는 새해맞이 불교 영화 상영 계획을 소개하며 영화평론가이자 일리프(Iliff) 신학교 부총장 '제프리 메이헌'의 영화 감상평을 소개했다. 그 중 한국영화 2편에 대한 감상평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제프리 메이헌:** 나는 이 영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하며 불교 사상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동자승이 커가면서 겪는 일을 순환식의 인생으로 빗대어 전개되는 점이 매우 좋았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프리 메이헌:**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불교 영화일 것이다. 상당히 도전적으로 만든 작품같다. '봄, 여름, 가을…'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생과 사, 선과 악, 행과 고라는 우리 존재의 체험이 주어지고, 생은 공하며 태어나는 것도 사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영화로 표현해 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보형 객원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업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알아차림 명상’은 습관도 바꿀 수 있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②



## 성격은 습관의 산물

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도 보름이나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처럼 살아가고 있다.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눈으로는 새로운 달력을 보고 있고, 오늘이 2017년 1월 15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처럼 일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며 사람들을 만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치 그러한 생활이 나인 것처럼 생각되어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선호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습관 때문이다. 인간의 성격은 습관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필자의 아내는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서운한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한다. 한 예로 아내가 서울에 있는 아들집에 갈 때면, 집을 나설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일체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 않는다.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야 별일 없이 도착한 줄 안다. 그래서 어디가면 전화 좀 하라고 서운한 마음을 전하지만 대답이 없다. 이제는 그러한 아내의 습관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화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잤다. 한 사람은 20년 동안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20년 동안 걸핏하면 욕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신발이 없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욕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신발이 없어졌네, 어쩌지?’라고 했고, 욕을 자주 했던 사람은 ‘어떤 망할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며 법석을 떨었다. 두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상황을 맞이했다. 두 사람이 각기 살아온 습관이 보여준 모습이다.

## 알아차려야 바뀐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다. 두 달 전쯤 필자가 운영하는 제주국제명상센터에 모 중학교 학생들이 명상수련을 하러왔다.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좀 더 밝고 안정되게 길러주고자 의도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학생들은 수련실로 들어오자마자 뛰고 뒹굴고 드러눕는 등 전혀 수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겨우 자리에 앉게 한 다음 눈을 감고 호흡명상을 하고 의사소통 실습과 요가 아사나를 하기는 했으나 진행 내내 잠시도 조용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15세 전후인 그들은 5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 들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도소에서 내가 만난 20대 청년들, 그들은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이상 반복적으로 교도소에 드나들었다. 이유를 들어 보면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속이거나 폭행을 한 결과다. 그들은 필자와의 대화 도중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반복적이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시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도 자각하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청소년기와 성인초기를 보내고, 나이 들어서도 그러한 삶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도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랄 것이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미래에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형태도 더 매력적인 경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나는 내 아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선을 보기 위해 다방에서 만났다. 차를 마시면서 마주 앉은 아가씨를 보니 등이 약간 굽어 보였다. 속으로 ‘곱추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다고 확인할 수는 없고, 차를 마신 뒤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봤더니 아무렇지 않았다. 다행이라 여기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아내의 앉은 자세는 습관적으로 바르지 않아 등이 굽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종종 “등 좀 펴고 앉아요”라고 말했다. 그래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아내와 같이 요가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요가를 가르칠 때 지도자는 자주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등을 펴세요, 요추 3번을 배꼽으로 살짝 밀어 넣으세요.” 라고 말했다. 요가 아사나의 모든 동작의 기본은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는 자세였다. 그렇게 배우기를 3개월 째,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딸이 엄마를 보더니 “아빠, 엄마 등이 반듯하게 펴졌어요”라고 하지 않는가! 얼마나 옆에서 많이 들었으면 딸이 나더러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아내는 반듯하게 앉아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결혼 후 30년 동안 말로 했으나 변하지 않던 아내가 요가 경험 3개월 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년 말의 가르침이 3개월 경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위빠사나 · 마음챙김 수행**
> **현대인 만성질환 치료에 도입**
> **명상 통해 마음상태 관찰 즉시**
> **행동 교정되고 평온함 이뤄**

21세기 들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존 카밧진(1979)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트레스 등 만성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통증 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마음챙김(알아차림), 호흡, 아사나, 주의집중과 같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근간이 된 위빠사나(Vipassana)명상도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삶 속에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림으로써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즉시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데 초점이 있다. 흔히 도박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과 같은 삶을 파괴하는 습관들은 오랜 세월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지금 현재 행하는 자신의 행위를 알아차리고 더 매력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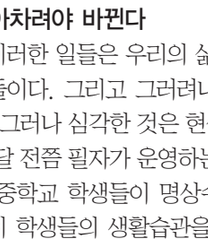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데 매력적인 경험보다 더 강한 것이 ‘알아차림 명상’이다. 2500여 년 전 인도에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온 20대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삶의 주된 흐름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다. 집에는 온통 남의 물건들로 가득 찼다. 늦었지만 스무 살이 넘어서야 자신의 행위가 남을 해치는 나쁜 짓임을 알고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의 행위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온통 남의 물건이 전부였다. 그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성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다. 도움을 청하자 성자는 “훔쳐라, 그러나 알고 훔쳐라”라고 말했다. 훔치지 않으려고 갔는데, 훔치라고 하고, 거기다가 알고 훔치라고 하니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자의 말씀인지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으나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했다. 어느 날 자신의 손이 물건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자 그는 손의 행위를 알아차리고 멈췄다. 손이 훔치고자 하는 것을 본 순간 훔치는 행위를 멈춘 것이다. 그는 비로소 ‘알고 훔쳐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때부터 자신의 행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의 물건에 닿기 전 손의 움직임, 물건으로 뻗어가는 손, 주머니에서 나오는 손, 무의식으로 물건을 바라보는 마음 등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드디어 훔치는 행위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 삶의 화두는 ‘알아차림 명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화두는 일생의 과제이기도 하다. 매 순간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순간’이라는 시간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잠시 동안 그저 들리는 것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자각 전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소리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보자. 사람들의 얘기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가 ‘현재의 소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소리도, 미래의 소리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듣는 유일한 소리는 오직 ‘현재’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 순간을 만나면서 마음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로움이나 슬픔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런데 깨어 있는 상태로 매 순간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Ken Wilber(2011)에 따르면 현재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갖지 못한 것을 미래엔 갖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시간 너머 현재에 살기’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순간보다 미래 순간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순간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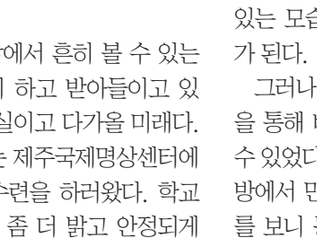
20여 년 전 필자는 처음 아봐타를 배우고 나서 지도자와 경험을 나누면서 걸었다. 그리고 헤어져야할 갈림길에 이르렀다. 그 순간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 머뭇거리는데 그 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갔다. 그 순간 필자의 가슴에 찬바람이 일었다. 그 분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 분은 그 때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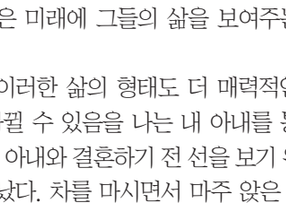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신공단등(8cm) @3,000원
• 황금연등(8cm)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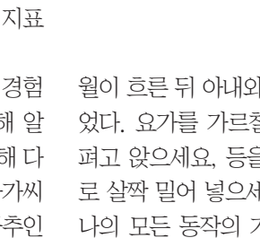
일반연잎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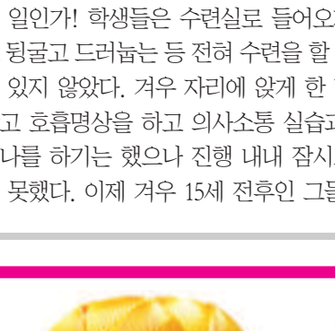
바림연잎 7,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청도만월등 160,000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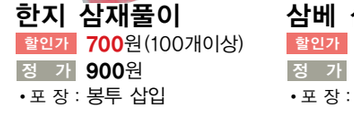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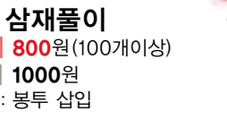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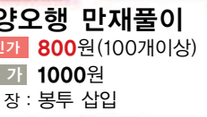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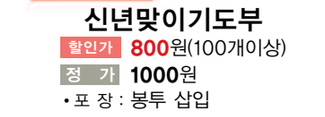
한지입춘대길(大/小/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小/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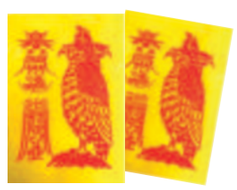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6.5×23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금지)/600원(경면)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대행 스님



#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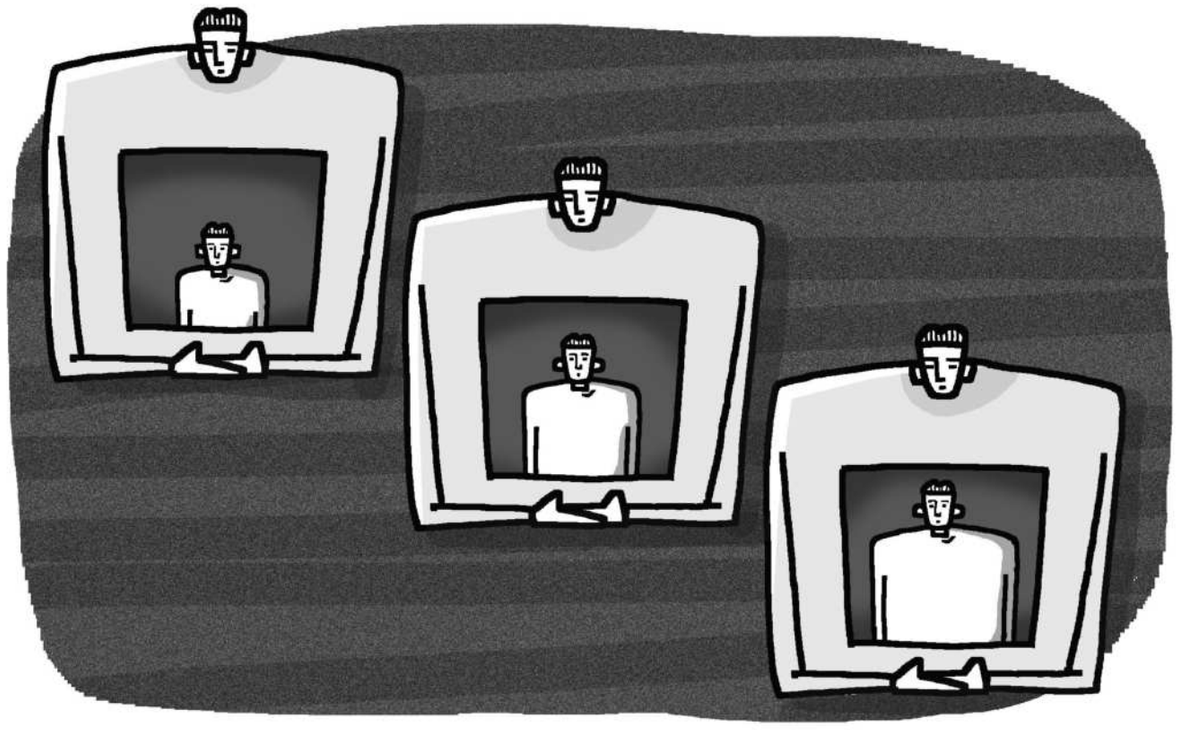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한 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찰나에 백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항상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들고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이 아니 된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다' 하고 치셨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장자로다가 치는 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죠.

그 세 가지를 따져 본다면,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것도 그놈, 작다고 하는 것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그놈, 바로 '나' 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현재로 따져서,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 본다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나조차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찰나찰나에 그냥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일거수일투족 그냥 행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고 듣는 거와 가고 오는 거와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찰나찰나에 화(化)해서 돌아가느니만큼 바로 시공이 초월됐다는 말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려서 그거를 번연히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몽땅 그 자리에다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무효인 것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못살든 잘살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있는 것이 바로 확증이 돼야 내가 스스로 부처고, 내가 스스로 부처니까 내가 스스로 법을 행하고, 내가 법신(法身)이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항상 끄달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안으면 어떻습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안고 삼보에 귀의한다.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한다.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전체,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體)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그 성종은 바로 내 성종이요, 그러니…. 성종이라고 한 게 거꾸로 됐나요? 종성(種性)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 거꾸로 됐으나 바로 됐으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법도, 행하는 것도 모두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일체가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믿는 것도 법이다. 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배우는 것도 우리요, 번뇌를 끊는 것도 우리요, 이루는 것도 우리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추어진 청각, 지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이러한 여섯 가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육근이 그냥 행한단 말입니다. 보시다 지계다 인욕이다 정진이다 선정이다 반야다 하는 것도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려 놓고 가닥을 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도리구(道理句)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를 자기가 가닥을 치지 못하면 어수선산란하기 때문에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시작도 끝도 간단하죠. 모두가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것이고, 그놈이 하는 것이니까 바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쭉 벌려 놓고 아리송하게 이건가 저건가 애쓰지 마시고 몰랐든 알았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근본 자체는 각자 바로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있으니까 여기에다 다 놓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가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딴 짐승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건지려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건지기 때문에 나 아니 되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아픔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또 더불어 같이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있죠,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죠. 그러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이 그냥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 옆댕이에 붙을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차원에 따라서 붙는다, 안 붙는다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항상 '그 간단한 거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마는 내가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 이런다고 얘기를 가끔 하죠. 그것이 뭐냐.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변해서 금방 나투어서 그냥 딴 걸로 바뀐단 얘기죠. 우리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하는데 내가 인군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신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공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척수가 내 척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통틀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한 몸뚱이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나다, 내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거를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게 없고, 내 거다 하고 세울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 세울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묵살해 버리고 '모든 거는 당신 자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를 좀 긁적거리다가 내려왔지만, 거기를 보면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 하고

☞ A18면으로 계속


##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탈종공고

- 법 명 : 성문 (양창선)
- 승려번호 : 9906-10176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 A17면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 하고 물었다면,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했지 진실로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 놨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빼놓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느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지, 또 미래로 가서 어느 주머니로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백지장 사이를 뛰어넘죠. 우리 마음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것만, 이 세상 살이가 고정된 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 나라고 내놓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무디게 그냥 얽매이고 애써야 됩니까?

눈물 나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뭘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탄지탄합니까? 인생은 지금 요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떠 있는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그 가고 옴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옴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의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이 주머니 속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또 다른 모습을 해 가지고, 만날 이 주머니에서 뱅뱅뱅뱅 뱅뱅 몇 생, 아니 세세생생을 돌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 번을 거푸거푸 태어나야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간에, 끼리끼리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습에 의해서.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사람 모습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자체, 바로 자기가 텅 빈 그 자체여서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엔 여여하게 그대로, 세상 법이 그대로 즐겁고 그대로죠. 내일 죽든지 이따가 죽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잘 이끌어서, 망하게 가는 길도 스스로 잘 가게 만듭니다. 주인이 있어서 잘 가게끔 하는데 왜 잘 못 갑니까? 믿고 안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어떠한 분야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다 그 한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리해서 이런 걸 쓸 때는 이런 걸 쓰고, 저런 걸 쓸 때는 저런 걸 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化)해서 나투면서 쓰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들이고 낸다 할 때, 낼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갖가지 용도대로 쓰지만 들일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소가 하나라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가지각색으로 쓰는 전력이 다 한 발전소에서 나갑니다. 그러는데 전력이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전력은 나가는 게 육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그 공(空)한 가운데서 출현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실천을 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아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가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올라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 잘한다고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이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혔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까요,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모두 먹여 살리고 있고, 구정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핏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바다로 해주고 채찍질을 할 땐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다.

또 아주 맨 밑바닥에 있는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한번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맨 밑바닥에까지 태양열이 갈 수가 없죠.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이고, 나같이만 산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이럴 겁니다, 아마. 산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그러니 우리 자체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 하면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고 수행한 거리도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세생생에…, 어떠한 물체든지 다 수레같이 바퀴가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거든지 중심이 끼워져 있어요. 중심이 끼워져 있으면서 그 중심은 움죽거리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해서 바퀴를 구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퀴는 바로 중심의 심봉에다가, 사람의 근본이 저 심봉이라 하면 그 심봉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맡겨 놓고'라는 언어도 붙지 않죠. 그냥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까 그냥 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살림살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심봉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 왜 딴소리를 합니까? 딴청을 하고, 딴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금방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껄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야 그건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커녕 얼굴이 찌푸려지고요,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열이 치밀고 이러죠. 내가 그만한 힘이 있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봉이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떤 용도로 바퀴가 굴러도 아주 서슴없이 그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형제 법우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럽시다. 뭐 별난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만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와서 주머니 속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한 분이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 같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딨습니까? 서로 도반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모든 것을 둘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진도가 좀 늦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지금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듭니다.

**큰스님** 편히 앉으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걸랑은 '시기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걸랑은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똑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댁은 그냥 어느 한 개체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뚱이가 움죽거리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울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뉘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까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까 완전히 해말갛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거를 되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냐 적으냐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너 아니야? 화 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장담하죠. 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 (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문의 :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불자 세상보기 |

#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자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개 같이 벌고 정승 같이 쓰는 건 정승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적합**
**개 같이 버는 동안 습관은 쌓인다**

**재벌 자제들 승무원, 종업원 폭행은 잠깐 드러나는 어이없는 세태 아냐**

**"1/4은 구제에 써라" 善生거사 말씀 현대 자본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

비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는 떳떳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쓴다는 속담이다. 악착 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 돈에 포한이 생겨서 꼭 돈을 벌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돈 버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흔히 뇌까리는 말이다. 혹은 그 돈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돈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답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 그럴까?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쓸 수 있을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쓰는 사람은, 개 같이 벌 때에도 늘 정승이었던 사람뿐이다. 그것도 천의 하나, 만의 하나의 일뿐이다.

개 같이 버는 동안에 개 같은 습관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이 온 몸에 온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성격이 되어버린다. 그 성격으로는 정승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도 그럴 수 없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은 천한 일 귀한 일 가리지 않고, 정승처럼 가치 있게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하는 사람에게나 적합한 말이지,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버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도둑질하던 심보로, 도둑질한 돈을 어떻게 정승 같이 쓸 수 있을까. 개 같이 벌어서는 정승 같이 쓸 수 없다. 정승 같이 벌 때만 정승 같이 쓸 수 있는 법이다. 버는 것도 가치 있고, 떳떳하고, 보람 있게 벌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 온통 쏠린 관심을 뚫고서 소위 가진 집 자식들의 행세가 언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엄동설한에 불난 집 앞에서 덥다고 부채질 하는 꼴이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을 폭행하고, 술집에 가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다. 그뿐인가? 게다가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땅콩 회항까지.

그냥 잠깐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세태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가끔 벌어지는 못된 송아지만의 일이라기에는 너무 잦고, 그러고도 당당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 소위 2세의 철면피는, 그들이 가진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성품이 되어버린 습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하면 심하게 오버하는 것일까?

〈불설선생자경(佛說善生子經)〉에서 부처님은 "만일에 구하여서 재물을 얻으면, 마땅히 나누어서 네가지 몫을 만들어라. 한 몫은 옷과 밥에 이바지하고, 두 몫은 이익 얻을 밑천으로 삼고, 한 몫은 간직하여 저축했다가, 재난이 있을 때에 구제하라"고 가르친다.

선생(善生)이라는 거사의 아들에게 재물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거사'라는 호칭은 부처님 시대의 인도에서 자산을 축적한 자산가이므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본가에 해당한다. 흔히 장자(長者)라고도 불리는 이들이다. 1/4은 반드시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은, 소위 자본가라는 이들이 귀담아 들을 만하다. 나누고 베푸는데도 충분히 재물이 사용되어야만, 가진 재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되기는커녕 과시하고 무시하는데 공공연히 사용된다면, 그것이 복의 원천일까 아니면 재앙의 원천일까?

社說

# 탈종교화 극복할 百年大計 기대한다

조계종이 종단 미래종책을 연구하는 종령기구 '백년대계본부'를 설립했다. 기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고, 각종 위원회를 포함시켜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그동안 미래 전략보다는 주로 현안을 다루는 부서들로 운영돼 왔다. 종단 또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TF팀을 구성해 대응했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불교 위기설에도 이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설립된 백년대계본부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누차 강조해온 '5°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기구다. 그렇기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불자들은 현재 한국불교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백년대계'를 원한다. 백년대계본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백년대계본부가 제34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 구성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서도 대부분의 정권이 임기 말미 레임덕에 빠지고, 개혁 의지가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은 역사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철(前轍)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올 연말에 출범하는 차기집행부가 이어갈 미래전략을 마련하기엔 분명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선 안 될 일이다. 완벽한 기초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그로부터 탄생한 백년대계가 '탈종교화'라는 한국 종교지형을 되돌리는 혜안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문화재청 不通 정책도 국정농단

새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곪을 대로 곪았던 문화재청의 불통(不通)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된 문제다. 이 연구용역은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지난해 4월 낙찰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착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있어 당사자인 조계종과 해당 사찰과는 어떠한 협의와 사전 통지도 없이 연구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사실을 안 조계종이 11월 9, 30일 공문을 보내 연구용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1월 5일 조계종 국장 스님들이 문화재청장에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접수하고서야 1월 9일 매우 불성실한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도 가관이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문화재관람료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을 참고해 달라. 향후 문화재관람료 관련 사항은 조계종 총무원 및 해당 사찰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읍소였다.

문제는 '연구는 연구일뿐 오해하지 말라'는 식의 문화재청의 태도다. 정책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연구를 국민에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과업지시서까지 연구기관에 제시해서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유도하려 한 불순한 의도의 연구를.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그렇게 풍족한가.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만 하는 게 아니다. 문화재청의 관료주의 행정도 바로 국정농단이다.



발언대

# 탈종교 시대, 새로운 종교 지형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19일,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교인구 조사는 통계청이 1985년부터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무종교인이 전체 56.1%로 종교인구보다 13%나 많고, 개신교가 불교를 추월하여 1위의 종교가 됐다. 종교 인구는 2,155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의 52.9%에 비해 무려 9%, 약 3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 감소분은 불교의 종교인구 감소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가 가장 많은 967만 6천 명(19.7%)으로 10년 전에 비해 1.5%, 12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교는 761만 9천 명(15.5%)으로 10년 전보다 7.3%, 296만 9천 명이 감소했다. 천주교는 389만 명(7.9%)으로 10년 전보다 2.9%, 112만 5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결과가 다른 종교 조사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통별 각론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교인구의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의 여러 종교조사를 보면, 종교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교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현저히 나타난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로 종교집단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았고, 향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성 종교에 자신의 불안 해소와 미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기성 종교를 '반기독교'나 '비구 독재'로 비하하고, 심지어는 그 운영방식을 비꼬아 '영혼주식회사'라고 질타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일부 종교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종교적 대안을 찾아 나섰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성과 근본주의'였다. 전자는 제도종교를 해체하는 기능을 하였고 후자는 제도종교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적 피난처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개인에게는 탈근대의 영성이, 집단적 피난처를 찾고 있던 개인에게는 이성적 근대성에 저항하는 비합리적인 근대성을 가진 근본주의가 선택됐다. 이후 영성은 명상이나 수련을 강조하는 불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종교와 관련된 종교인구의 감소시키는 핵폭탄이 되었고, 근본주의 신앙은 개신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종교를 더욱 강화시켜 신앙집단을 통한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2000년 초에 위기를 맞은 한국 종교의 내부 분열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 초부터 종교 내부의 개혁을 놓고 종교의 구성원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핵심성원들은 자기 조직을 지키고자 자기 신앙과 교리에 더 집착하는 근본주의를 강화하였고, 주변성원들은 종교 조직에서 떨어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명상과 수련과 같은 영성종교에 탐닉하게 되었다. 전자가 종교공동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개신교의 대형교회 사례라면, 후자는 불교공동체에 자기 위치가 없는 재가신도들의 사례다.

개신교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대형교회 중심으로 종교인구가 증가한 반면, 불교는 영성종교에 탐닉한 주변신도들이 제도종교를 이탈해 종교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 새로운 종교지형이 등장한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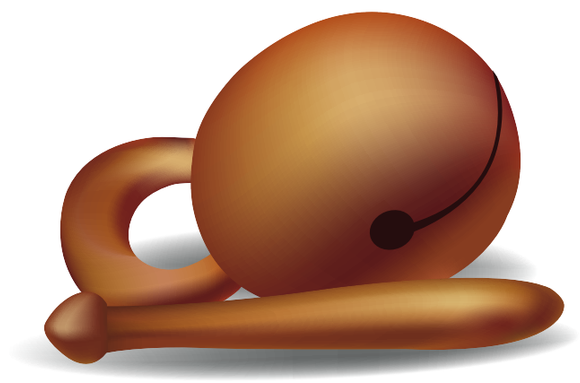




# 전국의 불교인이여 일어나라

## 국가안녕 및 탄핵기각을 위한
## 자유수호 범불교도 시국대법회

# 목탁 지참



## 전국의 불교인이여 일어나라
## “가자! 서울 대한문으로”

**“태극물결로 불교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러가자”**

---

**■ 일시 :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 장소 : 서울시청앞 대한문**

---

스님들께서는 가사 장삼 착용해 주십시요



이치훈 프로듀서
음악으로 전하는 '인생 화두' B5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돼요." 김명옥 회장은 새벽이면 조용히 노트를 편다. 머쓱한 듯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말한다. "40년 넘게 쓰다보니 이제야 '집착없는 자유'를 알겠네요." 햇살이 비치는 오후가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다.

# "금강경과 41년, 佛法은 자비 나눔 원동력"

그대는 자비보살 김명옥 명지금강문수회 회장

**일타 스님이 심은 불심씨앗**

**1976년 감로사 보살계서**
**스님 지목 · 글 받고 발심**
**〈금강경〉 매일 읽고 필사**
**"집착 없는 자유" 뜻 알아**

**수행은 지혜와 자비를 낳다**

**명지장학회로 인재불사**
**매년 800만원 후원**
**행자복 직접지어 보시**
**자비의 쌀만 8톤 달해**

새벽 2시 30분, 김명옥 명지금강문수회 회장이 맞는 하루 첫 시간이다. 김명옥 회장은 일어나자마자 곧장 〈금강경〉을 손에 잡는다. 5000자가 넘는 〈금강경〉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가면 어느덧 동이 튼다. 41년, 김 회장이 〈금강경〉 읽기를 추천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적고 또 읽은 시간이다.

수행은 지혜를 낳고 그 지혜의 결과는 자비다. 꾸준히 수행을 해온 김명옥 회장은 자연스럽게 도반들과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그 첫 번째 나눔은 인재불사로 회향했다. 인재불사와 승보공양은 명지장학회 창립으로 이어졌고, 이 원력이 발전해 부산 도심 해인사 직할포교당 대명지사 건립까지 이어졌다.

1월 9일 방문한 부산 대명지사에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불사가 한창이었다. 따뜻한 겨울을 발원하며 새롭게 들여온 온풍기가 법당 내를 훈훈하게 했다. 공양간과 화장실 등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다. 불사로 인한 인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282평의 법당에서 느껴졌다. 법당 내의 소음과 먼지는 오히려 야단법석이 돼 새해 포교 전법의 신바람을 기대케 했다. 모두 인재불사에 나서 온 김명옥 회장의 희망과도 같았다.

### 일타 스님 인연이 마음의 인(印)으로

김 회장의 불연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적 가족들의 영향으로 사찰을 간간이 찾긴 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자가 된 것은 40대에 부산 감로사에서 일타 스님에게 보살계를 받으면서부터였다.

"많은 대중들 가운데 갑자기 저를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놀라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때는 불법을 잘 모를 때라 보살계 회향일에 친구들 때문에 찾은 것이었거든요."

일타 스님의 지목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김 회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어 온갖 생각이 떠올라 복잡해졌다.

"스님은 저에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스님은 글을 들고 해인사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라니 기도도 하고 108배와 〈금강경〉을 읽으라고 하셨지요."

김 회장은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1970년대 해인사에 가는 길은 험했다. 왕복 시간만도 8시간이 넘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매월 보름이면 일타 스님에게 받은 글을 가지고 해인사를 찾았다.

"스님께서는 '다라니를 하는 동안은 온 우주에 너 하나 뿐이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 해답을 풀고 싶었습니다. 〈금강경〉의 뜻도 알고 싶어 꾸준히 빠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금에야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집착없는 자유였습니다."

풀기 힘든 숙제를 내고 열반한 스님의 뜻을 알고 난 뒤 김 회장은 더욱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올린다고 했다.

"큰스님이시니 친견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영천 은해사를 찾아 극락전에 모셔진 스님 영정에 절을 올리곤 합니다."

깨달음에 늦음이란 없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 삶이 곧 정토였기에 40년의 시간을 더 보내도 바랄 것이 없다는 김 회장이었다.

### 도반과 함께 만든 명지장학회

일타 스님과의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을 낳았다. 일타 스님의 조언에 따라 해인사를 다니던 김 회장 주변으로 하나 둘씩 도반들이 모여들었다.

"해인사를 보름마다 다니면서 도반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각사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해인사를 다닌다는 것을 안 불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김 회장과 도반들은 해인사를 갈 때마다 행자 스님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도반 중 한 명이 행자 스님들이 너무 추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행자 스님들이 추워보였어요. 가야산 추위는 바람에 살이 에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반들과 함께 결의를 했죠. 직접 행자복을 지어 드리기로요."

김 회장을 비롯한 도반 4명은 행자복을 각자의 집에서 만들었다. 매달 천을 직접 짜서 만든 행자복이 200벌이었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며 도반도 9명으로 늘었다.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니 더욱 신바람이 나더군요. 승합차 한 대를 가득 채우고 함께 해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는 명지장학회의 이사들입니다."

1980년 이 9명의 도반들은 함께 '명지장학회'를 조직했다. 명지장학회는 1년에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뿐만이 아니다. 어머니 손맛으로 지은 만발공양까지 해인사에 전했다. 또 쌀도 전달했다. 회원들이 모은 쌀만 8톤에 달한다.

"1년에 800만원을 주기적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9명의 이사들로 힘이 부쳤는데, 회원이 60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해인사 참배도 회원들이 손수 버스를 빌려 조를 짜서 함께 움직이니 가능했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B7
가족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 한 자씩 마음에 꾹 새기는 보현행 서원



김명옥 회장은 노트에 한 자씩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쓴다. 쓰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재차 읽는다.




김명옥 회장이 도반들과 불사한 부산해인사 포교당 '대명지사' 현판을 가리키고 있다.

"진리에 도달했느냐?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해"

**김명옥 회장**은 … 1976년 일타 스님의 권유로 수행을 시작해 명지장학회를 설립하고 해인사 행자 스님들을 위한 가사 공양과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어 해인사 직할 포교당 대명지사 창립에 힘썼으며 전국의 사찰 불사에 기여했다. 아울러 '명지금강문수회'를 조직하고 108사찰 순례를 진행해 법석을 열었다. 책 〈물 흐르듯 꽃피듯〉, 〈53선지식을 찾아서〉, 〈대방등대집경〉을 편찬해 법공양을 펼쳤으며 미래 인재 불사를 위한 서원을 세우며 활동 중이다. 금강경 독송과 사경 수행을 40년 넘게 진행한 김명옥 회장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열린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명옥 회장'** B1면에서 계속

"많은 대중들이 모이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꿈꾸게 된 것이 해인사 포교원입니다."

### 해인사 포교당 대명지사 불사 시작

명지장학회의 회원 수는 더욱 늘어 현재 1000여명에 이른다.

김 회장은 이 힘을 바탕으로 1997년 부산 북구 구포2동의 삼정그린코아 상가 4층을 분양받았다.

불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김 회장은 1만점의 '불(佛)자'를 직접 그려 나눠주겠다는 원을 세웠다. 인터뷰 중 보여 준 팔에는 아직도 이 '불자'를 그리다 남은 혹이 남아있었다.

계기를 물었다. 김 회장은 "어느 스님께서 돈이 있어 보이는 불자에게는 작품을 적어 두세 점을 넘겨 줬지만 가난해 보이는 불자들에겐 작품을 주지 않는 모습에서 다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작품을 받은 불자들이 스님께 봉투를 건네 드리더군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외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보살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적은 불(佛)자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불사의 원동력이 되길 바랐죠."

김 회장의 붓글씨는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성장했고 6000점의 작품을 직접 표구해 대명지사 불사에 활용했다.

김 회장과 도반들의 원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회장과 도반들이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찰 불사를 일으킨 곳은 69곳에 이른다.

### 108사찰순례 '문수회' 창단, 전국사찰 다녀

2008년 김 회장은 해인사를 함께 찾던 도반 700여명과 함께 '명지금강문수회(이하 문수회)'를 창단했다. 〈금강경〉 1000독을 하며 전국사찰 108곳을 찾아 기도하는 단체다. 문수회는 수행에 있어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차례 버스를 빌려 사찰을 방문합니다. 108곳이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행입니다. 수행의 법열로 참석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으로 동행했어요."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들은 법문을 김 회장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기록한 것도 모자라 수첩에는 모두 형광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반복해서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긴 표시다. 그렇게 모은 법문을 문수회는 책 〈물 흐르듯 꽃피듯〉을 법공양으로 발간했다.

책 표지에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 상관없다. 과연 얼마나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열정은 축복이다. 무의미한 욕망은 결국 무의미할 뿐이다. 오직 진리를 향한 열망만이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해진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보현행의 순례를 떠나자'고 적혀 있다.

**도반과 함께하는 수행 박차**

**'명지금강문수회' 구성**
**버스서 〈금강경〉 1000독**
**10년 기념 〈53 선지식…〉 발간**
**"佛恩 조금이나마 갚을 것"**

**붓글씨로 포교·전법 나서**

**'佛'자 6000점 표구해**
**불사기금 마련, 69곳 불사**
**해인사 부산포교당 '대명지사'**
**불사 후 문화 포교에 박차**

여기에는 열정으로 구법의 순례길을 떠나는 문수회와 그 회원들의 중심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김 회장의 자세가 담겨 있다. 문수회가 책을 발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53선지식을 찾아서〉는 문수회 10주년을 맞아 2016년 봄에 발간한 책이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떠나 듯 법을 희구한 김 회장의 마음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대방등대집경〉은 법공양을 위해 발간한 책으로 이 책과 인연 맺게 해준 여래원 지성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편찬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법공양을 '불은(佛恩)에 보은하는 길'로 여긴다"고 했다. "책 표지도 고급이지만 글씨도 커서 편찬하는데 재정적 소모가 컸겠다"는 말에 김 회장은 짧고 강하게 답했다.

"책이 고급스러워야죠. 법공양은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른 수행은 바른 삶을 이끌어 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불교가 완성되며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지름길이 부처님 법에 있는데 어찌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글을 크게 해서 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편히 읽도록 배려했구요. 법공양으로 회향한 이 마음이 부처님 은혜에는 티끌 같으나 정말 조금이나마 갚고자 했습니다."

### 대명지사, 젊은 동량의 주춧돌 되길

김 회장은 앞으로 자신의 사명을 '인재불사'와 '포교'로 세웠다. 도반들의 자녀와 인연을 맺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걸었다. 김 회장은 자신과 인연을 맺은 청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이 된다고 했다.

"청소년기에 방황을 크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 마음을 못 잡고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은 인연들 가운데 16명은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가출을 하면 부모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함께 찾아 나섰는데 제가 정말 잘 찾아냈거든요. 다독이고 안아주고 멘토가 되어줬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학생 가운데 자신의 꿈을 찾고 나눔의 삶을 결심한 아이도 있어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소개 돼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열린 아이죠. 이름이 박지영인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기도 중이신 모습을 보며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과 환희심이 생길 정도라며…"

김 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넘쳐나는 대명지사를 꿈꾼다며 다양한 문화 포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41년 동안 읽고 써서 이제는 안 보고도 〈금강경〉을 외운다고 했다. 일주일에 4편을 정기적으로 적고 현재 258번째 적고 있다는 〈금강경〉은 따로 사경집이 필요 없을 정도다. 눈이 멀어도 〈금강경〉은 독송해서 기억하고 싶다는 설명이다.

〈자비경〉에는 자비심의 조건으로 유능함이 먼저 나온다. 그 유능함에는 마음에 정한 바를 명확히 마무리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정진이 곧 자비라는 말이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일 것이다.

김 회장은 옥련암에서 1만배 절을 하면서 멈춤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도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기를 기도했다. 4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강경〉과 수행으로 자신의 삶을 고요히 걸어갔고 그것만으로도 도반들이 생겼다. 도반들과 일군 그 삶의 축제 속에서 김명옥 불자는 '부처님처럼'을 되뇌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쟁이입니다. 온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시니까요. 저도 그 욕심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서원입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S800 유광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악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참선·염불 함께 닦아 '뿔 달린 호랑이' 되다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② 영명연수(永明延壽) 선사**

**"참선수행도 하고 염불수행도 하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 같아, 현세에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 부처나 조사가 될 것이다.**

**참선수행은 없더라도 염불수행만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모두 가나니, 단지 가서 아미타불을 뵙기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오.**

**참선수행만 있고 염불수행이 없으면 열 사람 중 아홉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저승 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 그만 휩쓸려 가버리리.**

**참선수행도 없고 염불수행도 없으면 쇠 침대 위에서 구리 기둥 껴안는 격이니, 억 만겁이 지나고 천만 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영명연수 선사 진영

참선 보다는 염불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니 선(禪)과 염불(淨)을 같이 닦아 '뿔 달린 호랑이(戴角虎)'처럼 세상의 스승이 되라는 가르침을 담은 선정사료간(禪淨四料簡)이다.

참선과 염불을 같이 닦을 것을 설한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근원이 된 이 법문을 설한 분이 바로 중국에서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이다. 중국에서 아미타부처님 성탄절을 영명연수선사의 탄신일인 음력 11월 17일로 정해 기념할 정도로 유명한 이 스님은 선종인 법안종(法眼宗)의 제5대 조사(祖師)이자 연종(蓮宗: 정토종)의 제6대 조사로 양대 종파에서 높이 존숭을 받은 분이다. 시대적으로 앞선 고승·대덕을 일단 뒤로 미루고 이 분을 연재의 서두에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염불이 하열한 수행방편으로 알고 있는 현실에서, 본래성품을 깨달은 선종의 조사가 왜 6바라밀을 닦고 염불로 보림하여 윤회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이 분의 일대기를 따라가며 공부해 보자.

### 공금으로 방생하다 사형에 처해도 무심한 경지

북송시대에 태어난 스님의 법명은 연수(延壽)이고 호는 포(抱)이며, 영명사(永明寺)에 오래 머물렀으므로 세상에서 영명선사라 일컬었다. 16세에 글을 지어 세상에 천재로 뽑힐 정도로 숙세(宿世)의 선근이 많은 이 분은 일찍부터 출가에 뜻을 두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허락을 하지 않자 세속에 계시면서도 불법을 돈독히 공부하였다. 총각시절부터 법화경을 수지독송해 오셨으며, 법화경을 보실 때는 글을 한번에 다섯 줄씩 봐 나갈 정도로 비상한 근기였다. 세속에 살면서도 살생이라고는 벌레 한 마리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방생(放生)하길 좋아하셨으며, 육류와 오신채(五辛菜)도 먹지 않았다. 세속에서 이미 출가승보다 엄정한 계행을 실천한 분이었다.

일찌기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고을 원 살이를 할 때의 일화다. 워낙 자비로운 분이라 산짐승이나 물고기 파는 것을 보면 그것을 꼭 사서 방생을 해줘야만 했던 스님은 자기 돈이 없을 때에는 공금(公金)으로 사서 방생을 해줄 정도였다. 그와 같이 수년을 하다 보니 마침내는 많은 공금을 축내어, 그런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처형(處刑)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국법은 공금을 사사(私事)로 쓴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 죽이게 되어 있었다.

당시 조전왕이 명령을 내리길 "죄인을 형틀에 매달아 칼로 목을 치려 할 때 죄인의 안색이 변하거든 목을 베고 안색이 변하지 않거든 목을 베지 말고 풀어주라"고 했다.

명을 받은 형리(刑吏)가 죄인을 형틀에 매달고는 칼을 들어 목을 치려 해도 스님의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태연(泰然)하더라는 것이다. 형리는 왕의 분부대로 목을 베지 않고 풀어주었다.

### 종달새가 옷자락에 집 지을 정도의 자비심과 삼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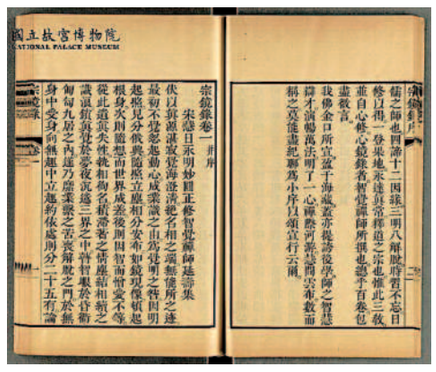
이런 일을 겪은 스님은 인생 무상(無常)을 더욱 크게 느끼시고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번에 꼭 죽을 사람이었는데 부처님 덕에 살아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니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잊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고는 명주(明州) 땅에 용책사 취암영명(翠巖永明)대사에게 출가하셨다. 그때 스님의 나이는 34세였다.

그후 천태산의 천태덕소(天台德韶)국사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대도(大道)를 성취하게 되셨다. 처음 깨달음을 얻기 전, 지자암에서 90일간 잠을 안 자고 철야정진을 하며 애를 써서 정(定: 삼매)에 들게 되셨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에 드시어 마침내 견성(見性)하여 법안종의 제5조(祖)가 되신 것이다. 당시 삼매에서 나와 출정(出定)을 하고 보니 옷자락 속에 종달새가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한다.

### 법화경 독송·염불·설법·보살행하며 짐승까지 구제

영명선사는 조사가 되어서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는 평생토록 법화경을 독송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중생들께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속 선정(禪定)을 닦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행할 수는 없어서 부처님께 의뢰하여 결정을 하기로 하셨다.

그리하여 지자선원에 올라가서 심지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일심선정(一心禪定)'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송경만선장엄정토(誦經萬善莊嚴淨土)'라고 써서 말아놓고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종경록〉. (청나라 판본)

**참선·염불 같이 닦으면 스승 되어 윤회 벗어나**

**관음보살 친견 후 변재 얻고 하루 10만 번 염불**

는 부처님 전에 판단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펴보니 '송경만선장엄정토'라고 쓴 것이었다. 다시 섞어 가지고 두 번째로 집어서 펴보니 역시 처음 것과 같았다. 그와 같이 하기를 일곱 번을 해보았으나 '일심선정'은 단 한 번도 집혀지지 않고 일곱 번 모두 다 '송경만선장엄정토'였다.

이에 영명선사는 모든 의심을 풀고 법화경을 독송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정토수행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그 즉시 염불을 하기 시작하셨다.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설법과 만행(萬行)을 행하심에 하루도 휴식없이 실천하셨다. 마침내는 산에 사는 조류(鳥類) 금수(禽獸) 미물(微物)들을 위해 천주봉에 올라가 법화경을 외우시고 높은 소리로 염불을 해주곤 하셨다.

그와 같이 3년을 하시고 난 어느날 삼매에 드시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자, 관세음보살께서 감로수(甘露水)로 입을 씻어 주시더라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관음변재(觀音辯才)가 열려 입을 열면 청산유수(靑山流水)같이 법문이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모두 환희심을 내어 발심을 하게 되며, 또한 모두 염불하여 윤회를 벗어난 세계인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원하게 되었다.

이때 영명선사께 법을 배우려 모여든 대중은 무려 2천여 명. 영명사에서 15년 동안 주석한 사이에 제자 1,700인을 제도하였고, 천태산에 들어가서는 1만 명에게 계(戒)를 주었다. 평생 염불을 하며 정토왕생을 발원하였고, 저녁에 별봉(別峰)에 가서 염불할 적에는 옆의 사람들이 하늘의 음악(天樂)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떠도는 귀신에게 시식하고 방생하기를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였고 40만 본의 미타탑(彌陀塔)을 찍어서 보시하며, 또 승속에 염불을 권장하여 정토종을 널리 퍼뜨리는데 전력하여, 세상에서는 미륵보살이 화생하였다고 칭송하였다.

특히, 매일 108가지의 일과 조목을 정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염불만도 10만 번씩에 달했다. 생전에는 〈법화경〉을 1만 3천 번 외웠고, 특히 〈법화경〉을 들에서 암송하면 양떼가 감응하여 엎드려 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국청사에서 참회법을 닦고 있을 때, 밤 중에 절을 돌아보다가 보현보살상 앞에 공양한 연꽃이 홀연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일생동안 꽃을 뿌리는 공양을 하였다.

### 선과 교의 금자탑 '종경록' 100권…선정쌍수 황금시대

영명선사는 관음보살이 감로수를 입에 부어주는 감응을 받고 관음변재(觀音辯才)를 얻게 된 후 팔만대장경을 요약했다는 〈종경록〉 100권, 〈만선동귀집〉 6권, 〈유심결〉 1권 등 60여 부 외에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종경록〉을 세 권으로 요약한 〈명추회요〉는 성철스님이 평생 애독한 어록이기도 하다.

영명선사는 일반 선사들과는 달리 신도들을 두루 자비로 대하고 보살행을 널리 실천했다. 율사로서 계율도 설하고, 선사로서 선을 지도하며, 인연 있는 사부대중에게 염불을 가르치며 대자대비행을 펼쳤다. 항상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2~3천 명이었으며 대중법회 때마다 1만여 대중이 운집할 정도로 선정쌍수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대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선사께서는 개보(開寶) 8년(975) 2월 26일 새벽에 대중을 모아 고별인사를 하시고는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으셔서 향을 사루고 염불하시고는 고요히 열반에 드셨다. 다비를 하고 나니 많은 사리가 나와 탑에다 모시어 지금까지도 보존해 내려오고 있다.

### 견성 후 염불과 108가지 행으로 보림한 대선지식

깨달음 이후에도 하루 108가지 행을 닦으셨다는 선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날 위기의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깨달음만 있고 보살행이 없는 소승불교, 참선만 위대하고 다른 방편은 하열하다는 오만, 출가승이 육식과 음주, 음행 등을 태연히 자행하는 파계, 매년 안거에 드는 선승은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수행가풍. 그리고 해오(解悟) 또는 작은 깨달음을 확철대오로 착각하여 깨달음 이후 성태(聖胎)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인 보림(保任)법이 없어 막행막식에 떨어진 풍토, "책 보지 마라"(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경전을 굴려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경전을 비방하고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이른바 '무식불교'에 떨어진 한국불교의 현실에 영명선사의 삶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선종과 정토종은 물론 교종의 대선지식으로서 염불수행을 하고 정토왕생을 발원한 것을 볼 때 염불이 결코 하근기만의 전유물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은 상상근기(上上根機)들이 간절히 권유한 원돈(圓頓: 원만하고 단박에 증득하는)법문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정토법문에 대해 참구해 보시길 간절히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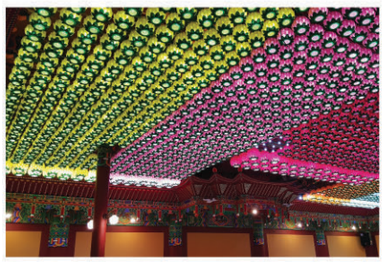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1~2017.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사찰불화명작강의 | 강소연 | 불광출판사 |
| 2 |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 매튜스미스 | (주)조계종출판사 |
| 3 | 붓다아비담마 | 멤틴몬/김종수 | 불광출판사 |
| 4 | 대방광불화엄경강설50(三十七.여래출현품) | 여천무비 | 담앤북스 |
| 5 |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 요코야마코이츠/허암 | 민족사 |
| 6 | 모든순간껴안기 | 아남 틈텐/임희근 | 담앤북스 |
| 7 |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 용수 | 나무를심는사람들 |
| 8 | 테라가타-장로게경 | 전재성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9 | 니까야로읽는금강경 | 이중표 | 민족사 |
| 10 |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 혜민 | 수오서재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진정한 행복 찾기, 세상서 가장 혁명적 행동"

##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 지음 | 김재성 옮김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5천원**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같은 사람을,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다시 괴로움에 빠지고 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삶의 부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감성으로 삶의 모든 부침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와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가장 깊은 행복 원천 찾는 열쇠, 자애 명상

위빠사나는 붓다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한 고요한 상태서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며 소멸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말한다.

1970년대 초부터 숭산 스님에게 선불교를 배우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밧 진 명예교수는 샤론 샐즈버그가 1976년에 설립한 통찰수행회서 처음 위빠사나를 접한 뒤, 불교 심리학을 실체 치료에 접목하여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이완(MBSR: 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심리 치료에 적극 응용했다. 이후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 바탕을 둔 이 명상치료법은 미국 전역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불교 수행, 특히 위빠사나 수행은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해야 하는 네 가지 수행이 있다. 붓다의 덕목에 대한 명상(佛隨念), 육체의 부정함에 대한 명상(不淨觀), 죽음에 대한 명상(死念), 마지막으로 자애 명상(慈觀)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네 가지 보호하는 수행'이라고 한다. 이 수행들은 수행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감각적인 욕망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 준다. 이 가운데 자애 명상은 이른바 자비관이라고도 불리는 수행법으로 실제 삶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 네 가지 고귀한 마음…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

틱낫한, 페마 초드론과 함께 '살아 있는 명상 스승'으로 존경받는 샤론 샐즈버그는 위빠사나 가운데서도 자애 명상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고립감과 외로움, 슬픔과 괴로움을 치유하는 동시에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는 나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 명상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서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느낀 친근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인 자애(慈), 연민(悲), 함께 기뻐함(喜), 평온(捨) 향상시키는 수행에 대해 친절히 소개한다.

네 가지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자애(慈愛)'는 빨리어로 메따라고도 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리킨다. 자애 명상은 가장 먼저 '나의 행복'을 바라는 일에서 시작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은인, 적, 싫지도 좋지도 않은 감정이 드는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 등으로 점차 확장해 나간다.

나머지 덕목인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은 메따에서 발전해 나가며 메따가 그 나머지 덕목들을 지탱해 주고 확장시킨다. 자애 명상 분야의 탁월한 지도자로 지난 40년 동안 세계 도처의 학교,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종파를 초월한 수련법을 수천 명에게 가르쳐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명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심지어 거부하던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삶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명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 시작하려고 결심만 하고 망설이던 사람, 하고 있으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자세, 호흡, 구체적 일정과 문제해결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히 알려 주며 일상 속에서 자애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진정한 행복을 위한 마음 혁명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애 명상을 하면 시기나 질투, 탐욕과 거짓이라는 괴로운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에게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품으며, 다른 이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양보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쓰며,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듯 다른 이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게 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내면에서 변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샤론 샐즈버그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려는 모든 시도가 행복을 위한 혁명적 실천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확장시켜나가는 일은 나 자신을 바꾸는 일임은 물론 나아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혁시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자유롭고 자비로운 행복의 실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이 상처받기 쉬운 행성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에게나 같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도 다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며, 짧은 순간 우리를 스쳤던 행복이 영속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울 때에만 가능하다. 자애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깊은 행복과 내적인 안녕, 그리고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 다른 모든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래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책속의 밑줄 긋기

▲"지금 이 현재 안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열어 놓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신을 남에게 열어 놓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내면에서 변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36)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피난처나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하나의 중심점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느 한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은 평온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p.149)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보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즐거움과 슬픔이 계속 요동치는 세상사를 접하면서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주 깊은 축복을 느낍니다. 변하는 조건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아는 것, 붓다는 이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p.220)

# 선 황금기 수놓은 고승 설법 소개

## 매일 매일이 좋은 날

**채지충 지음 | 정광훈 옮김**
**느낌이 있는 책 펴냄 | 1만 5천원**





선문답은 깨달음의 정수를 담고 있어 불교 수행자들을 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돼 왔다. 선문답에는 장황한 교리 해설이나 미사여구 없이 일상적 용어를 사용하기에 읽기 힘든 내용은 없다. 하지만 글자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내 막다른 길이다.

또한 선문답이란 깨달음에 대해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 혹은 동료 선사들끼리의 문답을 말한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는 대화가 일상의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법칙서 벗어난 동문서답에 가깝다. 선에서는 쉽게 규정짓고 분별하는 것을 금하며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 생각을 무너뜨리길 권한다. 때문에 쉬운 언어로 쓰였지만 이해하기 몹시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선문답을 일상의 테두리 밖에 있는 방외어, 또는 격외어라고 칭한다. 선문답이 품은, 깊은 수행의 결실을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식이 길잡이가 되어 미로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왔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시아의 3대 삽화가로 꼽히는 채지충의 그림이 그 역할을 맡았다.

채지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가이다. 1948년 타이완 창화(彰化)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이미 평생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품은 후 오직 만화가의 길만을 향해 갔다. 15세 때 작품을 타이베이의 집영사(集英社)에 보내 합격 통지를 받은 후 타이완 화폐 250위안을 들고 타이베이로 올라가 직업 만화가가 되었고, 이후 40여 년에 걸쳐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국 경전과 관련한 만화로 출판시장을 휩쓸며 총 4천만 권에 달하는 책으로 45개국 1억 명 이상의 독자와 만나게 된다. 10년의 심혈을 기울여 2010년에 발표한 〈동방우주 삼부곡〉에서는 물리와 수학까지 그림으로 옮겨 동양의 사유를 통해 물리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제 35회 금정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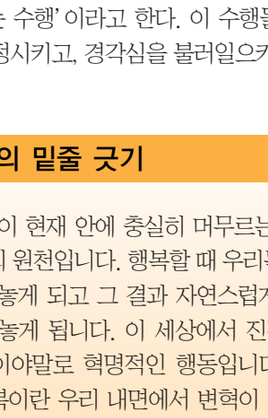
채지충은 단순하면서도 선의(禪意) 넘치는 필치로 인물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중국경전, 철학, 불교 사상을 독특한 견해로 해석한다. 그래서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독자들을 경전의 세계로 이끈다. 채지충은 한국의 고우영, 일본의 요코야마 미쓰테루와 함께 아시아 3대 만화가로 꼽히며 난해한 고전을 재치있게 해석해 만화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공자, 맹자, 손자, 장자 등의 중국 고전을 해학적이고 쉽게 풀어내어 45개국 1억 명의 독자들에게 선보였고 이러한 활동은 중화권 만화의 입지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채지충의 그림은 단순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흥미 속에 심오한 정신세계를 담아낼 줄 아는 작가이며, 그의 작품은 철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쌓은 깊은 지식과 영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년 동안 불경 공부를 하며 다져진 선지식은 불교를 공부한 학자만큼이나 예리하고 심오하다.

이 책에는 선맥의 기본이라 여겨지는 당나라 시대 고승들의 선문답과 설법이 채지충의 선화(禪畵)와 함께 실려 있다. 당나라 시대는 선의 황금기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선사들의 선문답이 정점을 찍었던 때이기도 하다. 책에 실린 채지충의 선화는 단순한 불교적 이미지를 넘어 유머와 해학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의 풍취가 생동하는 그의 그림은 선의 의미가 함축된 선문답과 만나며 의미 있고도 심오한 선의 힘을 뿜어내고 있다. 때문에 그림을 즐기는 독자, 선을 공부하는 독자 그리고 삶의 품위를 추구하는 독자 모두에게 충실하고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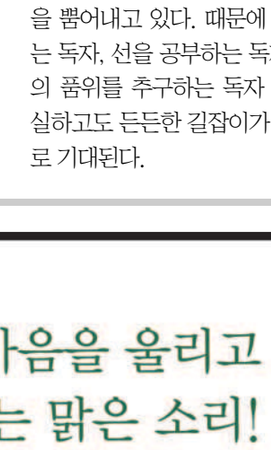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프로듀서 이치훈, 음악으로 전하는 '인생 화두'

1월 19일 '나란 역할의 연기' 발매
2010년 이후 7년 만 단독 싱글



사진제공=뉴아더스

신예 프로듀서 그룹 뉴아더스 이치훈(31 · 사진) 씨.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가 이목을 끌지만, 사실 음악에 대한 고집과 가치관이 그의 진면목이다. 유행에 따르기보단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 1월 19일, 그의 2번째 앨범이 7년 만에 찾아온다.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이치훈 프로듀서는 2006년 화요비의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요'로 데뷔했다. 이후 김종욱의 '언젠가 우리의 이 비가 그치면', 허니핑거식스의 '봄 다음 겨울', 이문세 15집 부타이틀곡 '뉴 디렉션' 등을 비롯해 KBS 드라마 '빅맨' 및 MBC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 OST 작업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주)뉴아더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화요비의 오랜 팬이었던 그의 첫 작품이 화요비 노래라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10년 간 숱한 곡들을 써왔지만 아무래도 첫 작품에 가장 애착이 간다.

"곡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쓴 가사에요. 8명 작사가가 경쟁했는데, 경험도 없고 어렸던 제가 화요비 노래의 작사를 맡게 됐다니 믿을 수 없었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풋내기 고등학생이 당대 최고 여가수의 곡을 썼다니 언뜻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밤새 작업실에 박혀있는 그를 보면 끝없이 노력하는 실력파임이 분명하다. 평소 말주변이 없는 그이지만 음악에 대해 얘기할 때만큼은 진지하고도 열정적이다.

"구태의연한 음악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평균 350곡이 새로 쏟아지는데 잠깐 인기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장에 돈은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음악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버려지는 곡 말고, 계속 생각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처음 음악을 시작한 곳이자 박효신 · 양파 · 화요비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몸담았던 '신촌뮤직'을 뛰어나와 2014년 직접 회사를 차린 이유도 마찬가지다.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곡 작업 전에 가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감성과



**서울대 작곡과 졸업해 2006년 데뷔**
**프로듀서 그룹 '뉴아더스' 소속**
**새 앨범에 자아에 대한 고민 담아**
**1000일 · 100일 기도하며 자아 성찰**

성향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야 음악에 애착이 생기니까요."

7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발표한 것도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3명의 가수에게 이 곡을 줬지만 모두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노래하기로 마음먹었다.

1월 19일 발표되는 이치훈 프로듀서의 신곡 '나란 역할의 연기'는 영화 '트루먼 쇼'에서 영감을 받았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나'란 역할을 연기하며 사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일까'란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아'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동안 분명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이번 노래에 담았습니다."

창창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사랑보다 인생에 대한 사색을 즐긴다니 의아했다. 하지만 곧 '불자로서의 이치훈'의 얘기를 듣고, 인생에 대한 그만의 철학과 가치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입대 전날 짐을 싸다 우연히 한글 금강경 소책자를 발견했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몰래 앉아 금강경을 읽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방황했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는 제대 후 학교 근처에 있던 성불암을 찾았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6개월 간 그곳에서 살았다. 1000일 기도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다.

"참선이든 명상이든 하루 3시간 씩 꼭 하자 마음먹었죠. 다라니경 독송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문제점을 알게 되고, 또 그 문제점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1000일 기도에 임하던 중 강박증이 찾아왔다. 기도하며 발견한 아집을 '해결해야한다' 생각하다보니 고통스러웠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망가질 것만 같았다고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고, 몸이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1000일 기도 회향 후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상(想)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100일 동안은 내 안에 내재된 의심과 불안,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1000일 기도와 100일 기도는 그의 내면 뿐 아니라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가 왜 음악을 하지?'란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시절 클래식 하는 동기들을 따라 콩쿨에 나가 1등 하고, 유학도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하는 학자처럼 학구열에 불탔을 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음악을 좋아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치훈 씨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꿈이다. 곡을 통해 사람들과 사랑을, 인생을, 진심을 공감하고 싶다고. 숱한 고민이 묻어났던 지난 10년이 앞으로 그의 음악 인생의 주춧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앨범 '나란 역할의 연기'는 1월 19일 정오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3월엔 '나란 역할의 연기' 등 5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이 발매된다. **박아름 기자**

## '건반의 求道者' 임현정을 만난다

### 2월 4일 예술의 전당서 리사이틀



클래식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인 24살에 베토벤 소타나 전곡 앨범을 발매한 불자 피아니스트 임현정〈사진〉이 한국 팬을 찾는다.

임현정은 오는 2월 4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침묵의 소리(Sound of Silence)'가 주제인 이번 공연에서는 임현정만의 강렬하고 독창적인 음악 해석이 담긴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임현정은 이번 연주에서 슈만(R. Schumann)의 '사육제(Carnaval Op.9)', 브람스(J. Brahms)의 '8개의 피아노 소품(Klavierstucke Op.76)' 등을 연주한다. 또한 그가 집중 연구하는 프랑크(C. Franck)의 '전주곡, 코랄과 푸가(Prelude, Choral et Fugue)'도 선보인다.

임현정의 연주가 울림이 있는 것은 작곡가의 작품, 사상과 일체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임현정은 지난해 내한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베토벤을 공부하다보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난다. 여기서 더욱 몰입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됨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임현정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 입학'을 앞두고 출가를 생각할 만큼 돈독한 신심을 가졌다. 이는 그의 음악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4월 부산서 사대산인 성담 스님과 함께 한 '어둠에서 빛으로'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불교 짓소리의 콜라보를 선보였다.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과의 인연도 깊다.

한편, 임현정은 국내 리사이틀을 필두로 프랑스 보르도, 툴루즈, 루앙 등에서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및 바렌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예정돼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권신홍 첫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 2월 3일까지 탑골미술관서 열려

신인작가 권신홍의 첫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빛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서 2월 3일까지 열린다. 권신홍 작가는 평소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노인의 일상을 경쾌하게 표현해, 지난해 탑골미술관서 진행한 신인작가 지원사업 단체전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빛과 색이 머무는 풍경, 사물, 인물에 대한 개성 넘치는 작품 약 15점이 소개된다. 아울러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월 24일 오전 11시엔 작가의 작품이 인쇄된 도안에 색을 칠하며 마음을 힐링하는 '나를 찾는 시간, 누리에 컬러링'이, 2월 3일 오후 2시엔 캔버스에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작품을 직접 그려보는 '노란색으로 금전운 업!'이 진행된다. (02)6220-8553 **박아름 기자**



백일몽' 할아버지 65.1x53.0cm 캔버스 위에 아크릴채색 2016.






저 절로 가는 길
② 강진 백련사에 가다

# 눈밭서 일어난 희열, 바로 '환희의 경지'

백련사 대웅전을 참배하는 등산객 부부.


눈덮인 설천봉 팔각정.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등산객 행렬.


눈 내리는 백련사 대웅전.

- 걷는길 : 무조리조트(케이블카 승차)–설천봉–향적봉–중봉–오수자굴–백련사–구천폭포–신대 휴게소–구천동 탐방지원센터
- 거리와시간 : 16km정도, 5시간 30분 (중봉 코스를 생략하면 10m 4시간 예상)

곤돌라가 어디쯤 올랐을까. 갑자기 주변 풍경이 바뀐다. 세상이 확 뒤집혀버린 느낌이다. 스노보드나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도 오간 데 없다. 무주리조트의 곤돌라 탑승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눈이 드문드문 쌓인, 그저 그런 갈색 산이더니, 해발 1,200m를 지나면서 새하얀 설산으로 돌변한다. 굼뜨고 의심 많은 나의 감정이 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극장문을 열고 들어가 어둠에 익숙해지는 시간만큼 족히 걸렸으리라.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나는 영화 자막 대신 엉겁결에 곤돌라 유리창을 쳐다보았다. 나무들 위로 눈보라가 치고 무엇에 쫓기듯 새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옷장문을 열면 '나니아'라는 마법의 세계도 동시에 열리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세계를 꽁꽁 얼게 하는 마녀는 어디에 있을까?

곤돌라에서 내리니 설천봉이었다.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듯 800여m 높이를 단번에 올라온 셈이다. 눈보라와 안개 너머로 팔각정이, 아니 요괴가 사는 성이 흐릿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와 도반들은 그 팔각정이 가까운 기상대에서 아이젠과 스패츠를 차고 스틱을 폈다. 몇몇은 마스크와 고글을 써서 눈보라를 막았고, 몇몇은 그저 눈을 감는 것 외엔 별 조치 없이 더듬더듬 돌풍과 안개를 뚫고 데크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손오공과 그 일행은 톈산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넜지만 우리는 눈 내린 설원을 걸어 향적봉 입구로 향했다.

겨울 덕유산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만 그 밖의 계절엔 안개 낀 날이 많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지나는 길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 산속으로 피란 나온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정감록도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꼽은 은둔의 산이다.

눈길에서는 아무리 잘 걸어도 조금씩 뒤로 밀린다. 그만큼 힘이 들고, 같은 길을 걸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핑계 없는 무덤이야 어디 있겠냐만, 명색이 등산을 하겠다면서 우리가 곤돌라를 탄 이유이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길가 나무들이 새하얗게 얼어붙었다. 거기서 뻗어 나온 나뭇가지들이 공중에 얽혔는데 부러져 내릴 것 같은 상고대(Air Hoar)다. 모두들 이 상고대를 보고 환호하는데, 나만 김성동이 쓴 '만다라'의 한 장면을 기억해내고는 묵묵했다. 영화로도 만들었던 불교 소설이다. 토굴에서 꽁꽁 얼어붙은 지산 스님을 빼내는데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얼음덩어리였다. 얼어 죽은 스님을 뜨거운 장작불로 다비할 때 누군가 요령을 흔들었다. 그 소리를 수년 전 이 덕유산에서도 들었다. 철쭉과 산죽, 키 작은 나무들이 웅크린 어느 능선에선가 얼음꽃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딸랑 딸랑거렸다. 구슬픈 소리였지만 햇살이 수정처럼 쪼개지고 있어 눈이 부셨다.

상고대는 눈과 서리, 안개와 구름이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더께를 이룬 꽃이다. 이 눈꽃이 만발하면 덕유산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설산수행하는 자세를 취한다. 보라, 저기 저 죽은 지 오래인 주목나무도 부처의 수제자 마하가섭인 양 가부좌를 틀고 있지 않은가.

**눈보라에 덕유산 산행, 설산고행 이랬을까**
**설산 나무는 마하가섭, 상고대는 만다라**
**종교적 상상력이 불교를 풍성케 해**

만다라의 지산과 마하가섭을 닮은 상고대의 주목나무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설산에서 고행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부처가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으러 찾아간 곳은 눈 덮인 첩첩산중의 히말라야가 아니라 마가다국의 변방 가야였다. 부처가 그곳에서 깨달았으므로 훗날 보드가야(Bodhgaya)가 된다.

가야에서 히말라야까지는 수백 킬로일뿐더러, 부처가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은 경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당 외벽에 그려진 부처는 그런데도 히말라야의 맹렬한 추위를 겨우 왼쪽 어깨만을 걸친 얇은 가사로 버티고 있다. 물론 부처의 고행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종교적 상상력이란 때로 불경을 구하러 인도에 간 현장의 이야기가 그러했듯 서유기라는 기묘한 모험담으로 둔갑하지 않았던가.

향적봉 1,614m은 정상치고는 터가 널찍해서 마치 대웅전 앞마당 같았다. 설경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초파일이나 백중 때처럼 분주하다. 일부는 벼랑 쪽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다. 첩첩한 산줄기, 물결처럼 넘실대는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한눈이 팔려 있는 것이다. 이 기분에 봉우리에 오른다. 낮은 데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볼 수 있는 데서 오는 희열, 이 기분에 젖을 때마다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법열이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눈이 떠서 모든 번뇌가 끊어질 때 온다는 환희지(歡喜地)는 어떤 기분일까?

북덕유산이라 부르는 향적봉은 백두대간에서 약간 벗어난 거리에 있다. 그 향적봉을 경계로 남덕유산이 시작되고, 남덕유산은 백두대간에 속해 있다. 향적봉에서 30여 분 걸리는 중봉은 북덕유산의 끝 봉우리로, 남덕유산과 갈라진다.

중봉에 올라 대간을 타는 등산객의 기나긴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백련사(白蓮寺)로 하산길을 잡는다. 계곡물이 흐르는 습지라서 바윗길이 미끄럽다. 아이젠을 차고도 발목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계곡은 단단히 얼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얼음장을 깨고 맑고 물은 솟아난다. 정상과 달리 계곡에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 키 큰 나무들이 즐비하다.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에서 번갈아 눈뭉텅이가 뚝뚝 떨어진다. 얼마를 걸었을까. 흰 눈을 머리에 인 백련사 일주문이 나타났는데, 배가 고파선지 그 모습이 떡시루를 이고 언덕에 선 여인네 같다. 81가지의 난관을 헤쳐 가까스로 천축국에 도착한 손오공과 그 일행도 금강경보다는 떡이지 않았을까.

백련사는 신라 흥덕왕 때 무렴국사(無染國師)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덕유산에 은거한 백련선사(白蓮禪師)가 하얀 연꽃이 솟아나온 곳에 지었다는 이야기가 더 그럴싸하다. 절의 다른 이름이 구천동사(九千洞寺)라든지, 구천동의 구불구불한 계곡에 9,000명의 스님이 머물렀다는 비현실적인 전설 때문일 것이다. 구천동은 옛 신라와 백제의 경계이자 관문이었던 나제통문(羅濟通門)부터 덕유산 으뜸 봉우리인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금강으로 흐르는 구천동 계곡은 길고도 아득하지만, 덕유산의 신령스러운 안개는 25km에 이르는 그 길이를 덮고도 남는다. 구천동 계곡에는 이런 소문이 떠돈다. '안개가 피어오르면 골짜기 문이 닫혔다가, 해가 떠오르면 스르르 문이 열린다.' 얼핏 환상적인 문장으로 보이지만 나름 논리를 갖췄다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된다. 9,000명의 스님이 은둔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하기에.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 문 밖

스쳐간 일언(一言)에 하루가 다 가는 사이. 문 밖은 설법으로 가득하다. 강에는 강물이 흐르고, 물새는 물 위를 날아오른다. 쉬운 듯 흘러가는 강물은 어제와 다른 것임을, 어제와 다른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기어이 강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물새의 날갯짓은 경이로운 일임을, 그 경이로움이 다름 아닌 '삶'이라는 것을. 쉬운 것은 어디에도 없고, 삶은 늘 경이로움인 것을. 스쳐간 일언에 여전히 답은 없고, 문 밖은 여전히 여법하고.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② 보배 코끼리 이라바나

# 아수라 군대, 이라바나 코끼리 등장에 '벌벌'

악행을 좋아하는 아수라의 무리는 복을 지으려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칩니다. 복 지은 사람이 모여 사는 하늘과 하늘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아수라의 우두머리 왕, 비마질다라가 나섰습니다. 비마질다라가 바다 물밑 아수라의 궁전에서 고개를 쳐들자, 여러 황금산이 진동하고, 수미산에 딸린 산과 골짜기와 수풀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마질다라 뒤를 거인 아수라왕 라후와 여러 작은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따랐습니다.

"하늘을 쳐부숴야 한다. 아수라의 힘을 모아서 하늘을 쳐부수자!"

비마질다라가 외쳤습니다. 아수라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좋아하는 악룡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악룡의 군사를 아수라의 군사에 합쳤습니다.

"악룡들아 너희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다. 세상에 나가서 나쁜 구름을 일으켜, 나쁜 비를 쏟아라.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못하게 하라! 염부제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곡식과 밥을 나누어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짓지 못하게 하라. 굶주리고 배고파서 전쟁을 못하게 하라!"

아수라의 총대장 비마질다라가 악룡의 왕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라의 수억 연합군이 큰 바다 위, 허공에 진을 쳤습니다. 갖가지 무기를 들었습니다. 아수라의 연합군에는 악룡의 군사도 있었습니다.

제석천왕을 모시고 수미산을 지키는 넷 천왕이 나섰습니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의 명령을 받은 4천왕이 먼저 나가서 아수라의 반대편 허공에 진을 쳤습니다.

바다 위 허공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고, 찌르고, 베고, 화살을 날리고, 불태우는 싸움입니다. 불길이 허공에서 바다에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지고, 수많은 아수라와 악룡의 주검이 허공을 굴러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을 싸움터에 보낸 아수라의 아내들은 바다 위 허공에서 하늘군사에게 쫓기는 아수라 군사를 바라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바닷물 속으로 계속 아수라군의 주검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내 남편이 아닐까? 그럴지 모른다."

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잔 물고기, 큰 물고기, 자라와 물개, 고래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첫째왕 제석천왕이 나섰습니다.

"내가 나서야 전쟁이 끝나겠구나. 우리는 부처님 법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 힘이 될 것이다. 하늘의 광명이 암흑을 걷어버릴 것이다."

제석은 보배 코끼리 이라바나를 불렀습니다.

"백 개의 머리가 되어라!"

제석의 말에 보배 코끼리 이라바나는 백 개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머리에는 열 개 어금니가 있고, 어금니마다 열 개의 연못이 있고, 연못마다 천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잎마다 하나씩 악기를 든 악사가 앉고, 소리꾼과 무용사가 섰습니다.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하늘은 평화를 원한다!"

"하늘을 이기는 자는 없다!"

노래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제석은 이라바나에 올라타고 단정히 앉아 광명을 놓으며, 눈빛으로 아수라군사를 어루만졌습니다.

넷 천왕이 제석의 뒤를 따르고, 금강갑옷을 입은 수억, 하늘 군사가 갖가지 무기를 들고 제석을 따랐습니다. 하늘사람을 돕는 선한 용왕이, 용의 무리를 이끌고 하늘군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무리의 수가 허공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라바나 코끼리 연잎에 있던 악사, 소리꾼, 무용사가 제석으로 몸을 바꾸었습니다. 연잎마다 하나씩 제석천왕이 섰습니다. 수만 명의 제석입니다. 수많은 제석이 휘두르는 칼날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석이 소리맞춰 외쳤습니다.

"하늘 군사여, 전진하라!"

제석의 목소리가 4주세계를 꽝, 울렸습니다.

아수라 군사 앞에 이라바나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수라 군사는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 코끼리 좀 봐. 키를 좀 봐. 크기를 좀 봐. 구름에 닿아 있다!"

"머리가 백 개나 되는군. 저 장수는 누군가. 제석천왕인가. 저렇게 많은 제석이 휘두르는 칼을 좀 봐!"

아수라에서 바위를 날리고 칼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늘 군사는 1유순 크기의 바위를 들어 아수라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산을 들어 아수라에 퍼부었습니다. 아수라 쪽 허공으로 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화살이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아수라군의 머리 위에 불덩이 번개와 벼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할 수가 없구나. 군사가 모두 쓰러졌다. 무기는 모두 바다가 삼켜버렸다. 망했다."

아수라군이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칼을 든 제석의 몸이 허공에 가득해졌습니다. 허공에 빈 곳이 없었습니다. 아수라의 온갖 무기가 헛것이 되었습니다.

아수라는 자기 영토로 쫓겨 가느라 바빴습니다.

아수라의 총대장 비마질다라는 부끄러, 부끄러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아수라의 군사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석은 아수라의 버릇만 고치고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는 척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제 우리도 하늘을 본받아, 하늘의 법을 배우자!"

아수라의 왕 비마질다라와 라후의 말이었습니다. 〈정법념처경 제21권 축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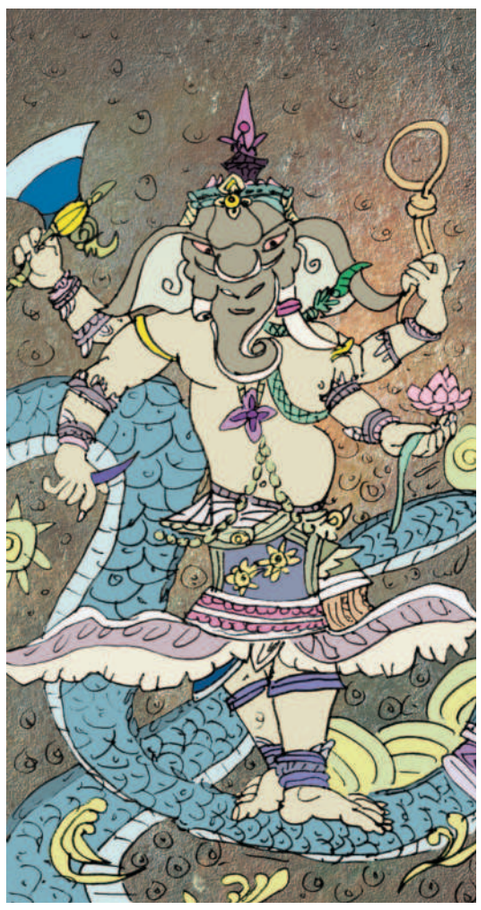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범/국/민/서/명/운/동

# 천년 문화유산을 지켜냅시다

**재벌특혜**와 **졸속행정**으로 **천년고찰 역사문화환경**을 파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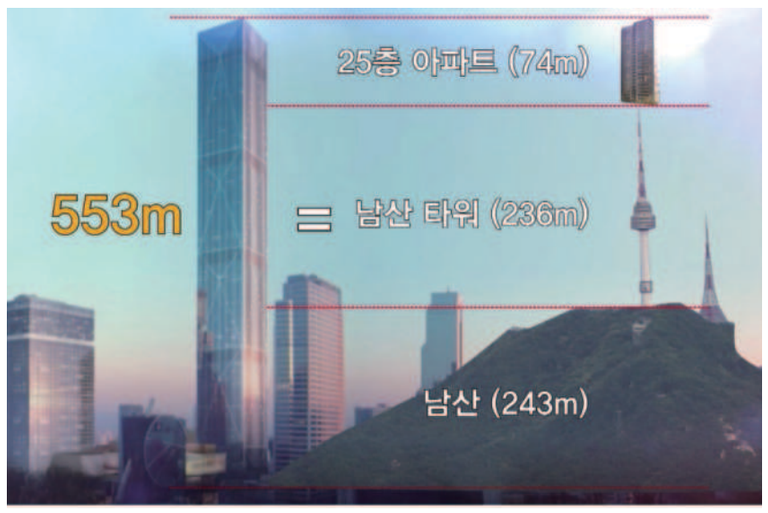
**초고층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 그 뒤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습니다.

- **2015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정몽구 회장 면담
- **2015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 지원' 발표
-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매입 관련 **8,000억원 세제특혜**
- 현대자동차 최순실(미르·K스포츠 등)에게 **201억 헌납**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재벌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건물높이 573.5m (현대차 553m + 대공시설 20.5m)

## 소중한 역사문화환경 수호! 조계종이 앞장서겠습니다!!!

- **서명운동 동참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사찰 어디에서나
- **핸드폰 · 인터넷 서명 :** 검색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http://**www.buddhism.or.kr**)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 02) **2011-1986~9**

대한불교조계종